朝鮮日報
夕刊
十三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徐州大會戰前哨戰展開

江蘇、安徽、河南을連結한 大包圍陣遂完成

敵五十萬의退路를遮斷

【○○에서十二日柴田、細波兩同盟特派員發】 李宗仁을 總司令으로한 第五戰區의 徐州宿縣方面에 刻刻切迫되는 決定的敗戰도 아지못하고 抵抗을 繼續하는 敵五十萬의 退路는 懷遠、蒙城、永城에서 全然切斷되엿다 黃塵과 熱風中에 構築한 江蘇、安徽、河南을 連繼하는 未曾有의 大包圍戰는 方今世界注目裏에 大展開를 보이려하고잇다 潁州、永城을 據點으로 徐州增援에 派遣된 廣西軍과補給彈藥糧秣은 百六十키로에 連하야 懷遠、蒙城、永城線에 遮斷되고 彼等의頭上에는 精銳無比한 海、陸荒鷲隊의 爆雨가亂飛된다 默默히 展開되고 默默히 조려가는 大包圍戰、如斯히

徐州大會戰의 幕은열리엿다

要衝南平鎭을完全占領

【○○에서十三日松尾同盟特派員發】 十二日午後五時지나 宿縣南方의 要衝南平鎭包圍를 完成한 鈴木、西島、藤村의 諸部隊는 逐次包圍網을 縮少하면서 眞紅의 夕陽이 漸次曠野의 彼岸으로떠러지는 午後七時를지나 一齊히 攻擊을開始 鈴木部隊는 一擧에 躍進하야 西門으로부터 第一着으로 入城하고 西島、藤村各部隊는 이에 繼續하야 城壁에 依據하야 抵抗을 繼續하는敵을 猛然히 壓倒하고 午後九時三十分頃、完全히 이를 占領하엿다

亳城、宿縣의敵도潰亂!

【○○에서十二日松尾、紫田兩同盟特派員發】 永城陷落으로말미아마 亳城(永城西北五十키로) 津浦線宿縣(永城東南七十키로)의 敵은 附近陣地를 突破中斷된까닭에 大動搖를 招來하야 潰亂狀態에빠젓다

徐州戰線白熱化

敵軍防禦에全力을傾倒

【北京十三日發同盟】 蔣介石軍이 唯一의 東方據點으로믿는 東部中支의死線은 前日에繼續하야자못 悽烈하야 彼我가必死의 攻防戰을 展開하고잇는바 特히 東部津浦線北方에서의 戰鬪는極히 順調롭게進展되여 이미目標한韓莊線의 地點을 占領하엿다 我部隊가 作戰的으로 重要한陣地 隴海線의 遮斷을何時에實現할것인가는 彼我가모두關心의 中心이되여잇다 敵總司令李宗仁은 徐州死守를 決意하고 四十五萬의 大軍을徐州 中央及東西의 兩戰線으로 配置하야 물샐틈업는 强壕로써 布陣하고最後의決戰을 企圖하고잇는바 이에 對하야 我軍은 東部戰線에서는 韓莊、嶧縣、台兒莊을 占領한後 正面으로부터猛攻을 加하야 敵의 心臟部를 찌를態勢를 整頓하는 同時에 東端으로부터는 南方으로 부터의 進擊과相俟하야 敵尾翼의 包圍陣을 形成하고 이미 그先頭部隊는歷史的인 隴海線遮斷의 壯擧를實現하려는中이다 그리고 西部戰線에서는 鄆城 金鄕의敵第一線은 어느듯崩潰하야 鄆城은我軍에게 占領되엿스며 金鄕及其外廓陣地인 大義集은十一日夜 마침내 我軍에게占領한바되엿다 我軍은 이外에作戰的으로重要한村落을 이미手中에너코잇서 近近西部戰線에서는 飛躍的 進展을 보일것으로 豫想된다 이리하야 蔣介石、李宗仁이 흉軍의 全能力、全智能을 傾倒하야 防禦에 完璧을期하고 잇는 徐州東西兩戰線도 我軍의 絕妙한 用兵作戰아페는 崩潰의 一途를더듬을박게업서 全戰線의 緊張은至今에 白熱點에 達하여잇다

(寫眞은 李宗仁)

澮河의南西岸 韓村集、吳家集占領

【○○十二日發同盟】 ○○部隊의 中央部隊는 任家集으로부터 十二日早朝行動을開始하야 明家河唐集子、韓莊을相次로 攻略하고 다시猛進을繼續하야 同日夕刻에는 澮河南岸의韓村集을 完全히 占據하엿다 또左翼○○部隊는吳家集으로부터進擊、杏南湖를一擧에陷落하고 다시馬庄을封鎖하고 午後二時지나서는 어느듯臨渙集을占領하엿다

이가티 澮河南岸及西岸은 完全히 我軍의手中으로歸하야固鎭宿縣西方의 敵退路를 完全히遮斷하게되엿다 그리고 固鎭南方의 澮河는 昔日項羽가 虞姬와江東의 健兒八千을 거느리고勇戰하다가 드듸여 一敗塗地한有名한 古戰場이다

皇后陛下 東宮假御所에行啓

【東京電話同盟】 皇后陛下께옵서는 十三日午前十時三十分 竹屋女官長御陪乘 廣幡皇后宮大夫를 거느리시옵고 宮城御出門、一年만에 赤坂東宮假御所에 行啓하사 아침부터 御待望하시든 皇太子殿下와 御對面하옵섯다 陛下께옵서는 御健康하신 御成長에 御喜悅의 빛을 띄우옵시고 高宮先 殿下의御室 御遊戲室을 御巡覽하옵신後 正午에 殿下와 午餐을 함께 잡수옵시고 午後는 初夏의 볕이잘쪼이는 御室에서 御團欒하옵시게 御一日을 보내옵시며 石川傳育官以下 側近者에도 御慰勞의 말슴을 賜하옵신後 午後三時 御機嫌御麗히 御所 御出門 宮城에 還幸하옵섯다

五攝家、麝香間祇侯 御陪食御吩咐

【東京電話同盟】 天皇陛下께옵서는 御恒例에 따르사、御傳蓮의 紀念으로 十三日正午近衛首相을 爲始하야 五攝家의 九條、一條、二條、鷹司、各公爵 德川家達公 各麝香間祇侯等을 宮中에 부르옵시사 伏見宮博恭王殿下께서도 御臨席 午餐의御陪食吩咐가게시옵섯다

米、太平洋島嶼에 空軍前哨線을强化

【華盛頓十二日發同盟】 總額二千八百七十五萬弗의 海軍根據地法案은昨日 上院을 通過하야 目下下院海軍委員會에 審議中인바 同案中에는 前日英國과의 間에 領有權을서로 主張하여다투든南太平洋의 칸톤、엔더바리南島에 가까운 팔미라諸島中의 小島數個가現在米國人의 私有로되여잇는것을 買入하기爲하야 二千五百萬弗을 計上하고잇는것이 判明되엿다 米國海軍은 右島嶼上에偵察機의 補助着陸場을 設備할意圖이라고하는바 太平洋上에 잇서서의 前哨線을 强化하는것이라하야注目된다

葡萄牙 프랑코政權承認

【리스본十二日發同盟】 葡萄牙政府는十二日 西班牙프랑코政府를 西班牙의唯一한 合法的政府로서 承認키로決定한旨를 發表하엿다

徐州一帶戰線에 敵軍同志戰

【北京十二日發同盟】 南北으로부터의 皇軍의 挾擊에 至今엔全혀 離島와가튼 運命에處하엿는 徐州는 李宗仁을 總司令으로四十五個師의 敵軍이 文字그대로 地面을덥허 防備에全力하고잇서 十重二十重의 陣地는 漸次조러드는 狀態이다 最前線이 皇軍에게 席捲되여서 潰滅되엿을 기다려 徐州에 第二線으로 退케하며 그동안 先鋒部隊를 强制督戰하야 補充하고 잇는 形便이며 여기에도 中央軍의 精銳로組織된 督戰隊가 後方에잇서 서서오는수업는 悲慘劇을 演出하고잇다 去三月十二日皇軍이 韓莊에 肉迫하엿슬때 ○○部隊의 先鋒이 一擧에 敵을擊破하고 韓莊을 占領한바 敵은二齊히 南方으로 潰走하려할지음에 그곳에 기다리고잇든 中央軍의 新銳約一個師는 닥자꼬자로 友軍을目標하고 猛烈히 機銃의 一齊射撃을퍼부어 猛烈한 同志戰을 벌리게되여 敗殘部隊는 退却할수업시 東方으로 潰走하엿든바 이가튼 悲慘劇은 目下徐州大會戰前線의 到處에서 展開되고잇다

時事解說

愛蘭에大統領制

新憲法에 基한 아이어(愛蘭自由國의 新名稱) 大統領選擧는 今月末日로 豫定이엿든바 候補者가모두 그만두게되여 마치내 四日 하이데氏가 當選되엿는데 氏가 無競爭이엿든것은「데·발레라」首相及反對黨인 聯合아일랜드黨 黨首 코스그레브氏가 共同하야 民族的立場으로부터 對抗馬를 내지안코 一致하야 하이데氏를 推薦한때문이다고하는데 氏는 來月初 就任키로 되엿다한다。

◇

하이데氏는 政治家로서 特히 注目할만한것은업스나 그는 法學博士 文學博士로 一九○一三年까지 아일랜드國民大學敎授、一九二五年以來 上院議員을歷任하야 文學、歷史、民俗學의 大家로 아이어의文學、敎育、藝術等各團體에 關係하고 그方面의 아일랜드를 爲하야 노력한 七十八歲의 老學者이다 氏는 今年 英本國에 對한 民族的文化運動을 指導하고잇는 國民의 두터운信望을밧고잇다。

◇

再昨年以來 新憲法은愛蘭의獨立을 一步前進시킨것으로 이는 愛蘭의 獨立心을 滿足시키는 同時에 對外的으로 英本國의 面目도 세울수잇섯다 即新憲法은英國으로부터 派遣하는 總督을 廢止하고 英國王(英國皇帝)의 指揮를 밧지안코 大統領을 選擧하며 國名도英國의 아일랜드를 脫하고 아이어는 獨立된 民主主義國家이다 그리고大統領은 國家의 首班으로 行政權을 掌握하며 모든國內機關을 統率하고 對外的으로만 英國의 名稱을 使用케되엿다한다 그러나 今後興味를끄는것은 아이어가 한民族으로 英國의 羈絆을 脫하고 自由國의 運命을 決定한 大統領下에 大英國의 內政外交에 어떠한 影響을 줄가에잇다。

山東西南三角地帶

敵의最後據點總崩潰

【北京十二日發同盟】 津浦線韓莊으로부터 鄒城에至하는 約七十里에亘한 戰線은 彼我의猛烈한銃砲火의 交錯으로 最近에보지못한激戰을 展開하며 鄒城南方에서는 我軍은 隴海線三里의地點을 肉薄하야 東側으로부터敵을 制壓하고잇는바 이와서로呼應하야 戰線의一翼을 形成한 菊山湖、南陽湖西方地區에서도戰況은 逐次進展하야 注目할만한展開를보엿다 濟寧西南方에잇는 我軍의 一部는 十一日에는 ○東北方西里의 地點으로 進出하야 ○○、○○의線에 依據한 敵에 壓迫을 加하며 他의有力部隊는 十一日夕刻 敵이 山東省의 最後의 據點으로 自信하는 西南部三角地帶의 要衝鄆城을 攻略하야 破竹의 進出을繼行中이다 支那側도 이三角地帶의 戰況發展을 相當히 重要視하야 徐州、新安鎭의 戰線과가티 三角地帶의 軍事的重要性을認定하고잇는바 이미 三角地帶의 西方黃河流域은 京漢線方面으로부터의 我有力部隊의 攻擊에依하야 거의平定되여 沼澤地帶를 不得已 放棄치안흘수업게되엿다 남은것은 旣設陣地에依하야 消極的抵抗을 해보는外에는 別도리가업고 따러서 ○○ ○○、○○線을 連結하는三角地帶最後의敵陣營은 我精銳의猛擊에依하야 包圍될것은 어미時間問題라고할수잇다 이가티山東省最後의敵의 據點인 西南部三角地帶의 崩潰는 徐州를中心으로한 隴海線上의 敵主力의戰鬪能力을 減殺하는바클것으로 觀測되는바 津浦線南段西側地區淮河徐州方面으로부터 北進하는有力部隊의 攻擊에依하야 總攻擊態勢가 完成되는때에는 四、五十萬의 敵의退路는 全혀遮斷되는結果가되므로 이方面今後의 戰局의發展은 자못注目할만하다

我岩中先鋒部隊 永城을完全占領

【上海十二日發同盟】 上海軍午後八時發表 今早朝蒙城을 出發한○○部隊는 永城南側의 敵을擊破한後午後一時永城에 入城하엿다『註』永城은 安徽省蒙城東北方으로는 河南省東南端의 縣城이며 城壁完備하고 또한東方으로는 徐州東南으로는 宿縣西北歸德으로通하는 公路의中心이되는 交通上의要地로 商業이殷盛한곳이다

【○○十二日發同盟】 八日蒙城及附近을 占領한 無敵○○部隊는十二日早朝 一齊히 北上을 開始하야其先頭○○部隊는長驅 敵의重要據點인永城에다다르자周章狼狽하는敵을擊退하고 午後一時마침내 永城으로 突入하야 日章旗를 城頭노피 揭揚하고 後進各部隊는 續續永城으로 突進 堂堂히 入城하고잇다

【○○에서十二日松尾細波兩同盟特派員發】 永城에 先着하여 殊勳을세운 岩中部隊는 十二日早朝 蒙城北部의 曹市集으로부터 先發하야 겨우 七時間餘에 約十五里의 惡路難路를 突破하고途中頑敵을 擊破하면서 대번에永城에 突入한것으로 그快速에狼狽한敵은 不意의襲擊을 當하고 놀래여 反擊態勢를 整頓할 餘暇도업시 潰走함에이르럿든것이다

伊海軍主力艦 임페로起工式

【제노아十二日發同盟】 伊太利海軍의新銳主力艦임페로號(三五、○○○噸)의 起工式은 十四日뭇솔리니首相出席下에 제노아港에서 行하기로되엿다 同艦의 裝備及性能은 左와如하다

主砲 十五吋
高射砲 六吋及三吋半
機關 十五萬馬力
速力 三十浬

裝甲은空陸海의 攻擊에 견딜수잇슬만치 充分히 두터이할것이다

支那軍皁寧에서 又復毒藥戰術

昇汞、靑酸加里를使用

【上海十二日發同盟】 戰況이 不利하게되여 敗戰의비치 濃厚하게되면 괴롭은끄테 毒瓦斯彈을使用하며 或은 非人道的細菌戰을 使用하는것은 今次事變以來支那軍의 取하야온 常套手段이엿든바 最近江北戰線에서 敗戰이繼續되여 焦慮한支那軍은 또다시 卑怯하게도 毒藥戰術을使用한事實이 判明되엿다 即去七日皁寧城을 占領한 通州上陸部隊의 佐藤枝隊의 兵士數名이 炎暑에 견디지못하야 목을축기려고 城內의 우물물을 마시엇든바 當場에吐瀉와苦悶을 이르켯스므로 同隊는應急措置를 講求하는一方 卽時城內溜水의 科學的檢査를行하얏든바 城內의우물에는 모조리昇汞水와靑酸加里及昇汞水가 投入되여잇는것이判明되엿다 어는敵이退却할때 投入한것이 明白한바로 部隊는 前線友軍에對하야 注意를喚起케한바 果然蒙城에入城한 ○○部隊는 同城內의 飮料水中에 昇汞水가投入되여잇는 事實을發見하고 이가튼非人道的行爲에 對하야 皇軍將兵의憤慨는 絕頂에 達하여잇다

鈴木、藤村、西島部隊 澮河流域一帶를占領

【○○十三日松尾細波兩同盟特派員發】 澮河河畔의 敵의 重要據點인 南平鎭은 十二日午後九時三十分鈴木、藤村、西島各部隊에 依하야 完全히 占領되여 澮河河畔의 敵重要據點은 모두 我軍의 手中으로 歸하엿다 다시 津浦線의 敵의 重要據點宿縣의 宿縣―蒙城街道上五里의 地點에 臨하야 全員은 猛活躍을하고잇다

【○○十三日發同盟】 南平鎭은 澮河에 沿한 敵의 重要據點으로 澮河의 水運에 依하야 敵兵站軌道線으로되여잇든바 同地의 占領으로 津浦線南端의 要衝宿縣固鎭의敵은 澮河의 水域으로부터 西方의 退路가 遮斷되여 至今엔 臨渙集、韓村集等同河의 流域地帶는 거의 모두 我掌中으로 歸하엿다

米最新銳航空母艦 엔더號進水

【노-폭크、버지니아州=十二日發同盟】 노-폭크海軍工廠에서建造中이든 米國新銳航空母艦엔터-푸라이즈號(一九、九○○噸)는이즈음竣工되여 마츰내十二日부터 就役하엿다 同艦은即時 太平洋艦隊에 編入될터인바 同艦은 一九三四年七月十六日起工 一九三六年十月三日進水式 乘組員二千七百七十二人 飛行機百機以上을 積載할수잇는 米國海軍이자랑하는 最新銳의 航空母艦이다

西尾敎育總監新任人事

【東京電話同盟】 西尾新敎育總監은 十三日午後一時三十分 參謀本部에 登廳하야 總長室에서 閑院參謀總長宮殿下께 新任을 感謝하옵신말슴을奉하옵신바 西尾中將은 다시敎育總監就任의 人事를 言上하고 繼續하야 同二時陸相官邸로가서 杉山陸相에게同一한 報告를하엿다

人事·集會

▲篠田李王職長官 渡東中이던바 十四日午前七時十二分京城驛着歸任
▲鹽原時三郞氏(總督府學務局長) 平壤地方古蹟視察次出張中 十四日午後九時五十分 京城驛着 歸任豫定
▲金大羽氏(總督府社會敎育課長) 平壤地方出張中十三日歸任
▲岡久雄氏(總務局事務官)南朝鮮地方出張中十七日歸任豫定
▲西龜三圭氏(總督府衛生課長)慶北浦項移出牛檢疫所開所式參列次十二日午後二時四十八分京城驛發列車로出發 明十四日午後歸任豫定
▲伊東喜八郞氏(恩賜記念科學館長)新任人事次來社

本社參觀(十三日)

▲安岳安新尋常小學校生徒七十五人 引率者宋順鎬氏
▲安岳昭和尋常小學校生徒百五人 引率者金鳳俊氏
▲宣川昭和尋常高等小學校生徒百名 引率者金龍植氏
▲海州露良尋常小學校生徒五十八人 引率者權快徹氏
▲中和揚武學校生徒六十二人 引率者崔義淑氏
▲海州東雲尋常小學校生徒三十五人 引率者裴東槿氏

八面鋒

津浦線、隴海線의 交叉點으로 交通上、軍略上 가장 要衝인 徐州의 大會戰이 開幕。

◇

李宗仁을 總司令으로한 支那軍四十萬、北으로、東으로、南으로 包圍하는 皇軍

◇

日露戰爭時의 奉天大會戰과도 갓다하며 歐洲大戰時의 벨당攻擊과도 갓다한다。

◇

勝負야 定한 理致나 이것으로써 日支交戰의 第二段落이되지 안홀가。

◇

滿洲國과 獨逸間에 修交條約이 成立되어 滿洲國을 正式承認。

◇

日滿獨伊의 連結이 더욱 鞏固해지는 판。

◇

李王殿下께서 淑明女專創立基金으로 二十萬圓 御下賜의 吩咐。

◇

못가에도 惶悚하올 吩咐。 이로써 淑明女專의 前途 榮耀 洋洋。

◇

晉州서도 六十萬圓의 中等校를 設置한다고。

◇

開城서 三十萬圓 못된것과 아울러 敎育界의 朗報。

淸導補腎丸 早漏防止 十日分 十圓
性器强大藥 男女性器短小(發育不全) 早漏에百發百中!

醫學博士 三浦良雄 三浦外科 內臟外科 一般外科 整形外科 レントゲン科 八脇病室完備 京城府西大門町 電話本局(2)一八四八番

クロバー口紅 クロバーホーバ紅 各デパート·化粧品店にあり 東京·三葉商會·大阪

海草精 淸血排毒强心特効藥 適應症 國境大藥房

桃屋 果實罐詰 品質第一 フルーツ 白桃、黃桃 枇杷、西洋梨 Peaches MOMOYA BRAND 東京 桃屋商會

朝報案內 犬病院 賣家 募集

世界唯一 小型純冷始動 ヤンマーディーゼル 農工移動用 据付小動力用 甲位入選 京城支店

カゴメソース 家庭에서만든料理도 맛이잇습니다 愛知トマト製造株式會社

整髮でー人柄が判る! 無帽の季節 尙更の 華、床しい 丹頂チックの整髮でー 金鶴香水株式會社

鑛山開發支障防止次 用品의供給을統制

重要鑛山卅個所를供給機關으로選定

12日總督府서關係者會議

총독부 광산과(鑛山課)에서는 십이일오후한시부터 제사회의실에 전조선각도 유력광산대표자 삼십사명과 각관계자를 초청하야 전조선각지에 산재하야 잇는 십이개소의 광산에 현하시국에 대처할 철재(鐵材)기계기타 제반용품의 공급통제 절약과개정방법 여하시행에 대한것을 협의결정하얏다

그내용의 일단을 듯건대 총독부내에 조선중앙광업협의회(朝鮮中央鑛業協議會)를설치하며 도각도중요광산사십개소를선정하야 그곳지명을 너허서 지방광업협의회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방이 서로연락을취하야 각종광산용재료를 최소한도로 절약하야 미리소속광산으로부터 소판을 청구하면 동지방협의회에서는 즉시이것을 수집하야 중앙협의회에 보고하야 각산지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것이니 이기관결성의 근본정신은 시국이시국인관계로 사용물자공황으로인하야 광산개발에 지장을 이르킬 염려가잇스므로 재료소비의 절약을하면서도 구입의원활을도모하야 장기계속을 예상하는 현하시국에 중대하고도긴급한 광산물증산에 급속도적진전을보도록하는것이다 이제 각지방광업협의회와 그소속광산수를 들면 다음과갓다

地方協議會와 所屬鑛山數爻

▲全南 光陽鑛山 所屬鑛山四二
▲同 寶城鑛山 所屬鑛山八三
▲全北 金堤砂金 所屬鑛山六〇
▲同 母岳鑛山 所屬鑛山二九
▲慶南 咸安鑛山 所屬鑛山一六五
▲慶北 文明鑛山 所屬鑛山五一
▲同 尙州鑛山 所屬鑛山一一一
▲同 金井鑛山 所屬鑛山七一
▲忠南 黃寶鑛山 所屬鑛山一六〇
▲同 西美鑛山 所屬鑛山一四〇
▲同 九峰鑛山 所屬鑛山一八〇
▲忠北 三黃鶴鑛山 所屬鑛山八五
▲同 泰昌鑛山 所屬鑛山一五四
▲京畿 永中金山 所屬鑛山八〇
▲黃海 三寶金山 所屬鑛山七三
▲同 甕津鑛山 所屬鑛山七二
▲同 遂安金山 所屬鑛山五八
▲江原 茂隱鑛山 所屬鑛山一一七
▲同 洪川金山 所屬鑛山一三〇
▲咸南 黃龍鑛山 所屬鑛山一五八
▲同 高原鑛產 所屬鑛山一二四
▲同 西湖鑛山 所屬鑛山一九〇
▲咸北 甫昌鑛山、所屬鑛山 六五
▲平南 遂城鑛山、所屬鑛山 六一
▲同 咸興鑛山、所屬鑛山 一三〇
▲平北 大榆洞鑛山、所屬鑛山 一七一
▲同 新延鑛山、所屬鑛山 一四四
▲同 寬川鑛山、所屬鑛山 一三三
▲同 殷鑛山、所屬鑛山 一五三
▲小林鐵石鑛山、所屬鑛山 七九
▲小宮黑鉛鑛山、所屬鑛山 一一〇
▲三菱鐵鑛山、所屬鑛山 六一
▲朝鮮無煙炭、所屬鑛炭坑 九七
合計二千六百十二個所

그런데 각도지방협의회로부터 십삼명과 석탄、철광、흑연 등 연사대로수광산으로부터 각각한명씩 전부십칠명의 위원으로조직하야 광업통제의 연락을도모하는것이다

大同工業專門

開校는六月上旬

來二十日頃에認可?

난산에난산을 거듭하야오든 대동공업전문학교(大同工專)는그동안 총독부학무국에서 여러가지로 연구심의하야오든중 일전에 학무국으로서의 인가준비는 갓갓스므로 총독부과총감의 결재를바더 오는이십일경에는 정식인가의 지령이나릴모양이다 그리하야 오는 태중에잇는 대동공전은 맛츰내 세상에탄생하게되엿는데 개교는 학생모집기타준비관계로 빨러야 오는륙월상순경에나 하게될모양인데 그러케되면 신학기 지난지가 이미이개월이상에달하게되므로 금년하기휴가는 전연폐지하야 신학기로부터 개교까지의 늦어진것을 보충하기로 될터이다 이상은 총독부학무당국으로부터 조건적으로 지시할것이다

興協과若草劇場對立 포스터ㅡ全廢問題로

경성시내의 흥행업자(興行業者)로서 조직된경성 흥행협회(京城興行協會)와 영화배급업조합에서는 시국에대처할 업자의결의를 굿세게하기위하야 지난십이일밤 본정이정목기린(麒麟)회관에서 총회를열고 각극장에서 사용하는 선전용『포스터ㅡ』를전폐하야서 비상시국의 소비절약을 하도록 결의하고 이것을즉시실행하도록 하엿는데 약초극장(若草劇場)지배인이 이안에 대하야『포스터ㅡ』는 선전상필요하다고 반대하는동시에 만약협회총회에서 이 반대안이 통과되지안코 기어히『포스터ㅡ』전폐안이 실행된다면 자기는 흥행협회에서 탈회해버리겟다고 주창하엿든바 여타사람의 의견을무시하고 단독행위를하려는것은 낫분일이라고 설왕설래끄테 철권이난비하고 회장이 수라장으로되엿다 약초극장지배인은 약간의부상을 입엇는데 여기에감정이격앙한 약초극장에서는 협회를 탈퇴하는일이잇더라도 결의에반대하라하고 협회측에서는 약초극장을 탈퇴시켜도 포스터ㅡ전폐안을 즉시 실행하기로되엿다고한다

李王殿下께옵서 土地를御下賜

鍾岩町에잇는山林二十八町步

淑明女子專門의光榮

리왕전하(李王殿下)께옵서는 저번 서울에 오시엇슬때에 숙명고등녀학교(淑明高女校)에 행차하시와 학교의발전상황을 친히 살피시고 특히 동교에서는 숙명여자전문학교의 설립계획을진행중이라는 내용을드르시와 조선의 여자교육계를위하야 가장 적절한계획 이라는 칭찬을 내리시어 학교당국자들은 그때에도 격려의 말씀을 밧드러 황공하온 감을 금치못한바 잇섯는데 그후 전하께옵서는 여자전문학교설립기본재산으로서 경성부 종암정(鍾岩町)에 잇는 산야 사십팔정보 단팔묘(四十八町六段八畝)를 하사하신다는 분부가 계시와 리왕직차관 리항구(李恒九)씨로부터 동교소전(小田)교장에게 전달이잇섯다 학교직원이며 생도 일동은 이소식을 듯든자 한가지로 전하의어인덕(御仁德)에 기괴감격을 밧고 감격하야 마지안는터이다 그리고 그산야는 약이십만원의 가치가잇는것이라 한다

蹴球의王都平壤의盛事 사진은평남신문사 관서체육회주최 십사회 전조선축구대회의 입장식과 경기광경

"골인"을노리고 壯烈·突擊戰展開

첫날은實業團의네"껨"을終了

平壤全朝鮮蹴球大會初日盛況

【平南支社發】 전통에 빗나는제십사회 관서체육회주최의 전조선축구대회는 전날밤 보슬보슬 속삭이든 봄비도개인 십삼일평양공설운동장에서 열리엇다 대망의 이날이대회를 위하야하늘은 노피프르고 부는듯 마는듯 한오월의 훈풍은 모란봉의 송림을스치니 젊은이의 가슴에혈혈이 용소슴친다 이가리하야 축구명절의 이날은 바야흐로 축복된것이다

◇

첫날은 실업단의 껨이네껨이나 잇서학생단측보다는 인끼와 흥이적을까햇더니 전통이란 놀라운것이라 개회전부터 몰려오는 관중은 장내외를 메엿다 그중에도 평양의 특색인부인네의 관중이 그사이사이에수업시 꼿출피우고잇다 축구에대한 전시민의 이관심!이열광!이성원!이것이 평양을 축구도시로 만들엇고 조선에축구를 이러틋 발전식혀주는 원동력이되는것이다

◇

관중뿐이랴!실업단의 첫껨부터의 저격전은 어떠햇든가 용의무리가 서로감고돌고 범의무리가 서로물고뜻는 장엄한남성다운활극전을볼때 열파된의미로써 그러지는 묘기(妙技)의 볼꼿 거기에는관중을 열광케하는 감격이잇슬뿐이다 일년을 밟것으로 일만하는 이근로자(勤勞者)들이 언제 떠케 저러기술을 닥것는가 우리는 놀라기전에 감탄하여야겟다ㅡ어 우수한 스포ㅡ츠의소질(素質)에는 향상하는 우리청년의 미더움이 더욱큼을 늣기지 안흘수업다

레도 이틀껨에는 아직운동도덕에 흠점이 적은 불쾌한장면이 때때로 보임은 유감천만이엇스나 그러나 발달도정에잇는 그들에는 어느정도까지 판대히 보아주지안흘수도업섯다

◇

병우(兵友)와 구천(久田)고무와의 접전에는 병우군이 절대우세하엿슴에 불구하고 겨우한 골밧듯는다는것이 『라인업』의 호각(呼角)과 동시의것이어서 득점이 못되엿든은 애석하기도햇스나 승패를 지배하는 신(神)의작난이 그러햇슴을 어찌하랴 연장전도 승부가업서서 추첨을하게되는 병우측의비장한 그얼굴이 그다음순간에 악단한표정으로변하며 맘비울파가티 눈물을흘리는 그장사의 정경은 동감안할수업는 장면이엇다

◇

청년단 고려(高麗)와 연전 보전오삐(OB)의 대전은 두편이 모두 평축의 선수가 갈더잇는 회기애애한 가운데 시합은 과연 모범적으로 곱게 진행되엿다"고려"에는 신진이 만히석겻잇는데 비하여 OB에는 평축의노장과한창당년에는 보전(普專)연전(延專)을대표하든 쟁쟁한 선수들이석겨잇다。『참잘찬다!』하고부지중탄성을 발하게하는 훌륭한연기를 보혀준것도 한두번이아니나 기운이모자라고 거름이떠서 보는사람으로 하여곰 안타까운 생각을 갓게햇다 "오ㅡ자꾸"의 별명을가젓든이정식(李貞植)군 뜻대로안되는볼을 일코는뒤머리에손을 언즈며 어색한웃음을웃는다 애교잇서조키도하나 『예날의"오자꾸"』여 어데갓는가? 일흔는지안는가?삼대령으로 너무 일흔 로 경기가끗난때는 벌써 모란봉우에히저녁달이 어섯푸레하게 나리엇다

今日·上告審結審

高啓學院의土地移轉請求事件

부내 보성중학(普成中學)을경영하는 재단법인 고계학원(高啓學院)대원권(大院權)보호고중권(高重權)고히원(高熙源)한보협(韓保協)신씨간의 토지소유권이전청구및 소작료인도 청구사건은 그간고등법원에서 계쟁중이든바 십삼일 도변(渡邊)재판장 주심하에 변론이 잇고 결심하야 오는 이십사일 판결언도키로 되엿다 이사건은 일심에서 원고측인고계학원이 승소하고 이심에서는 원고측이 패소하엿든만치 판결결과는 매우 주목되고잇다

縊首自殺

십삼일의금요일 서양의속담으로는 일년가운데제일불길한날이라고하는 어제오전 열시경되여 서내 대화정(大和町)에서 사십남자가 목을매고 자살해버린 시체가발견되엿는데 가진물건도 아모것도업서서 그근지도모르고 원인도알수업서 본정서에서 방금각방면으로 조사중이다

南原驛通行稅

【南原】 사월말일현재 남원역(南原驛)에서 취급한 통행세(通行稅)는 이백오십육원이십전에 달하엿다고한다

慈城地方에喜雨

【慈城】 평북 자성(慈城)지방에는 이즘 춘경기에 비가 오지아니하야 일반은 오래전부터비오기를 기다리든바 지난십일오후부터 가랑비가 나리기시작하야 아츰까지 나리여 일반농가에서 매우 기뻐한다고한다

十七歲의少年이 窃盜로京鄕風靡

犯行數十次。만被捉

경향각지에 소매치기 행각을하던 열일곱살먹은 소년절도범이 본정서에 자피엿다 강경읍동정(江景邑東町)구십일번지김덕갑(金德甲)(一七)은 절도상습자로서 지난번봄 개성에서 절도죄로 송국되엿다가 기소유예로 출옥하자 즉시 고향인 론산(論山)방면에가서 그부근 장터로도라다니며 소매치기행각을 하다가 사월이십사일 창경원벚꼿노리대목을 노리고 경성에차저와 창경원 종묘야시등 닥치는대로 절도질을 하다가 벗꼿노리가 끗난뒤에는 경성역을본거로하고 입장권으로 열차를타고 차내승객의 주머니를털기 무려수십차에 범행수십차에 피해액이 수백원에달한다

拳鬪界에喜報 統一體完成

新會長으로高元勳氏를推戴

明日부터豫選戰開幕

世界的水準을 어루만지고잇는朝鮮아마쥬어拳鬪界의 洋洋한 前途에 뜻하지아니한 暗雲이 떠돌고잇슴을 스포ㅡ츠人으로서는 누구나 遺憾으로 생각하던터인데 오는 廿一日의 日比國際拳鬪戰과 및 明十四、五日의 同豫選戰을 압두고 잇는힘을한데뭉처서 좀더 合理的으로 規律잇는 統制를한다면 보다더 躍進이크고 빠르리라는 觀念아래 일찌기 朝鮮體育會長을歷任한 拳鬪先輩 高元勳氏를 會長으로推戴하야 [illegible] 三日에 비로소 分立中에잇든 拳鬪界가 統一되어 大同團結을完成하야 全朝鮮拳鬪界의 統制團體가 되엿다

스포ㅡ츠界 明朗譜

徐州陷落祝賀行事 全朝鮮一齊擧行

旗行列과提燈行列準備

아국전사상에 불멸의기록을남길 서주(徐州)함락의날은 황군의신속용감한 진격으로 인하여 목전에 닥처왓스므로 총독부에서는 서주함락의날을 기하여서 전조선 이천삼백만민중이 일제히 황군의대승을봉축하고 다시 장기작전에처할결의를 새로히하기위하여 각종 축하행사를 열기로되엿다 그리하여 금번 축하행사에 당하여서는 전조선축하회에 [illegible]

一、전몰장사에대한 경건(敬虔)한 조의를 표함만한 행사를할 것

二、출정군인의 유족들과 백의용사들에대한 유족격려의 행사를 행할것

을 특히 중요하게 실시하기를 강조하엿다

家庭不和고미狀態

[illegible]

府民病院또擴充

十六萬圓의豫算으로

分院編入과內部擴張

지난소화구년에 경성부에서 부민병원(府民病院)을 신설하야 [illegible]

日滿實業協會 廿六日부터開催

일만실업협회(日滿實業協會)에서는 오는이십륙일부터 경성에서 제오회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되엿스므로 철도국에서는 그대회참석자에게 대하야 오는이십오일부터 이십팔일까지 조선안 각 열차에서 할인으로 우대하기로되엿다한다

陸橋아래서 卅六計노름

부내권농정(勸農町) 육교(陸橋)아래서 매일수십명이모혀 [illegible]

"北支視察"에는 現地와連絡이緊要

總督府서各道에通牒

신흥만주국의 실정을 알기위하야 또는 사변이후의 북지사정을 시찰하기위하야 조선내 각지에서 최근북지만주방면 시찰 [illegible]

【가】 시찰상 총독부의 의사를 [illegible]

【나】 시찰상 알선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단원명부와 일정표를 보낼것

【다】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사실을 속히 전보할것

【라】 숙박소에 대한 수배요구를 명시할것

【마】 『룸리스트ㅡ뷰로ㅡ』회의 연락을할것

滿洲方面=新京日本大使館朝鮮課
北支方面=北京日本大使館朝鮮課

糞尿탕크속에 嬰兒屍

死產?壓殺?

십이일오후일시경에 시내이촌정(二村町)경성부분뇨오물처리소(糞尿汚物處分所)탕크속에 영아사체가 버리여잇는것을 그곳인부가 발견하고직시 소관용산서에 신고하여왓슴으로 경관이현장에출장하여검시한결과 생후사오일이경과된남아의 영아사체로서 사산아인지혹은 어떤사람이 압살하야 버린것인지 분명치아니하여 십삼일해부키로되엿다

日比拳鬪에 康、李君快勝

에스링의金君活躍

【東京電話同盟】 東京에서의日比對抗拳鬪、에스링第一戰은 十二日午後六時부터 日比谷新音樂堂에서行하바 에스링은 四對零으로 日本이全勝하엿는데 라이트의金鍾廣君(明大)은 메르나베(比)選手를 八分五十秒에 『풀』로물치고 拳鬪對抗戰에는 메더ㅡ級의康仁濟君(立敎)이클드바君(比)을判定으로이겻고 웰터ㅡ級의李鐘煥君(早大)이 가브레라君(比)을亦是判定으로이겻다 이리하야拳鬪에는四對一로日本이勝利하엿다

夜의라디오

◇第一放送▲午後六時(城)이야기 [illegible] 宋今璇▲六時二五分(東)講演▲七時三〇分(大)歌謠▲七時四〇分(東)講演▲八時(東)獨唱▲八時三〇分(東)講演▲九時(東)時事解說

第二放送 ▲午後六時 맨돌린合奏 京城프렉트럼소사이어티ㅡ 指揮 金井菊夫 ▲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白牧丹 ▲六時三〇分 講演 金斗憲 ▲七時三〇分 歌謠 鄭錦紅 ▲八時(東) 獨唱과獨奏 피아노獨奏 鹽田晴子 뻬스獨奏 田孝 伴奏 三宅五十彦 바이올린獨奏 岩本메리ㅡ、에스텔 伴奏 津田아야메 ▲八時三〇分 唱劇調 金如蘭 競手 韓成俊▲九時 時事解說 ▲一〇時一〇分 國語講座

色鉛筆

시골손님이 길을물을때는 친절히가르켜드려야 할것은 말할것도업지만 ▲때때로보면 모처럼친절히 가르켜주어도무엇이 도미심하고 의심스런던간에 가르쳐주어도 다시 딴사람에게 못고도되묻는 일이 만타▲사람을 밋지못하는 것은 첫재자기를 밋지못하는 까닭이요、그다음이다른사람들미들수업서 그런것인데▲자기를밋지못하는것은 자기가 무지하기 때문이요、다른사람을 못밋는것은 거짓이 잇슬까 염려하는까닭일것이다▲친절한듯이 뵈이고 속여먹으랴는자도잇서고 그런치안흐면 변변히 알만큼 가르켜주지안코 그런모양인데▲친절히 가르켜주고도 의심을사는것도 할수가업는것이▲간혹보면 모처럼뭇는것을 바로 안가르켜주는것도 만흐니까▲전차를타구어랄때보면 그런일이비일비재

天氣豫報

概況 高氣壓은 日本海에서 朝鮮及本邦에擴大되여잇고 北海道東方海上에는 低氣壓이잇고 또滿洲西部天津附近에는적은 低氣壓이잇서 가치東進하고잇다 朝鮮及內地는 맑고잇스나 北海道는흐리고 處處에 小雨가잇다 滿洲도大體로天氣가조타

豫報 晴 時時로흐리다
明日 南西風一時소낙비가잇다
昨日最高 二〇度二
同 最低 一〇度六
今朝最低 一一度五
今日正午 二四度八

此人은 高血壓으로

結局腦溢血에걸리고 半身不隨中風이된다

血液의混濁을업새고 原因부터治療하라

右症狀은血壓이 높아서 結局腦溢血에걸리기前의兆이故로 速히加療치안으면危險합니다 그러나 從來의療法과가티 血壓을내리는것만으로는 根治시키기에는 不充分한것입니다 蠅取粉의今津本舖에서는 高血壓

腦溢血과中風의原因療法을 永年研究한結果 リキシン(イマヅ)라고하는內服藥을完成해서 一般에게分讓하엿슴니다 本劑는 病의原因이되는血液의混濁을 淨化하고血管의硬化를 除去해서 血行을조케하므로 血壓이自然이 나립니다 따라서上記의症狀도낫고 무서운腦溢血을豫防합니다

中風도快癒

腦病、半身不隨의中風이라도適用하면 차차나아집니다 全國藥店에잇슴 大阪市大仁의今津化學研究所로申込하시면 新研究의血液淨化療法과養生法을無代進呈

イマヅ蠅取粉

파리는勿論 (特製南京虫用도잇습니다)
▼빈대、벼룩、진드이
▼겻이、바퀴、구데이
▼머리이、○○의새면바리
▼犬猫、牛馬、家禽의벼룩、이、진드이、羽虫
問題업시全滅!
(全國藥店에잇소)

慰問袋에 반드시 蠅取粉

日本의兵隊들을 괴롭게구는 支那의파리、벼룩、빈대、어……軍馬害 못견디게하는 害은 實로 굉장해서 勇敢無比한 皇軍勇士도 어때문에 安眠을못하녕 조고만한 休息도 못하는 慘狀입니다 イマヅ蠅取粉은 어떤害虫이면 問題업시 退治되므로 軍部에서는多量으로買入하야 戰地로 보내고잇사온대 賢察한 害虫의 襲擊에는 아모리잇서도 不足합니다 兵士마다 다가질수잇게하려면 여러분이 慰問袋에 엇지마시고 한개식 너어서 速히 戰地로보내주십시요

株式會社 今津化學研究所 大阪市大仁本町三丁目

イマヅ殺虫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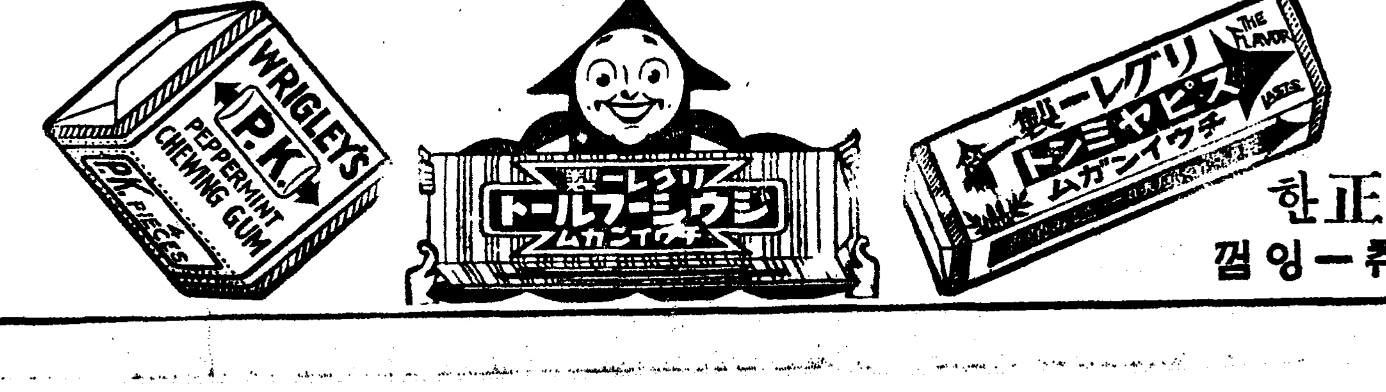
庭木ㅡ果樹ㅡ野菜
훌륭한 害虫驅除劑

イマヅ殺虫劑는 貴重한除蟲菊油를主成分으로해잇기때문에 殺虫力이非常히强하야 普通害虫이면 千倍로稀薄시킨液으로도 問題업시全滅합니다 그리고한번使用하면 害虫이 싫어하는香氣가 오래남아잇서서 害虫이他園에서 移動해오지안슴니다 또한 作物을 刺戟해서發育을 旺盛케하고 收穫을增加합니다 以上의 三大効果는 本劑가 世界各國의 專賣特許를어든 理由로서 다른殺虫劑에는 全然볼수업는特長입니다 「害虫驅除に就いて」冊子 新聞名記入申込하면無代進呈

H. 63

リグレー

純粹眞正한 츄ㅡ잉껌



口中을淸潔、新鮮하게食事、飲酒、喫煙後의口臭를업새고齒牙를强健케消化를도읍니다 每食後數分間씹으면얼마나爽快한가를試用해보십시요

JS-1

總賣出

二十五萬圓 新春大景品附大特賣

果然! 百補丸時代出現!

藥効·信用·賣上高 斷然第一!

一擧兩得! 百補丸한제에 景品券두장식

空鑯은 一口도 업시 누구나 다 大景品을탄다

●百補丸이 大補元氣 補血强壯劑로 効力天下第一이라는것은 벌서 三尺童子라도 다 잘아는 事實이지만

●今番 本社가 朝鮮初有의 大景品附로 百補丸 大特賣를 發表하자 滿天下 服藥家를 비롯하야 멀니 西洋에서까지 날마다 注文이 비빨가치 踏至하니 果然! 補藥界에서는 百補丸의 單獨天下가 되엿습니다

●이것은 全혀 百補丸이 무슨 藥보다도 効力이 조코 信用이 큰까닭이며 男女老少를 勿論하고 虛弱한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다 잘맛고 조키때문입니다

●더욱이 봄철에 百補丸을 服用하면 藥効도 더 잘날뿐아니라 一重으로 발재봉틀, 純金時計줄, 황소, 三層자개장, 白銅七첩盤床器, 自轉車等의 大景品을 타게됩니다 또한空鑯은 一口도 無하므로 大景品賞은 누구나다 타게되며 等外賞까지라도 一、二等賞과 對等의 價値잇는 珍貴品을 進呈하는 公平한 特別式景品特賣이오니 이런 好機會를 일치말고 効力조흔 百補丸을 쓰시요

▲景品附特賣 締切迫到! 注文은 只今곳하시요!

五萬名總當選

朝鮮初有의大景品

世界的 大强壯劑

百補丸

勿驚! 景品만 總額八千九百八十八圓三十錢

特賣規定

五圓다마다 大景品의 붓는다

景品附特賣藥品中 어느藥이고 五圓어치 注文마다 大景品券 一枚式進呈합니다

▲百補丸一劑 注文하시면 景品券二枚 三劑共同注文하시면 一劑無料添呈하는外에 景品券六枚를進呈합니다

特賣期間 自三月一日 至五月末日

當選發表 七月五日後 本紙上에發表함

누구나다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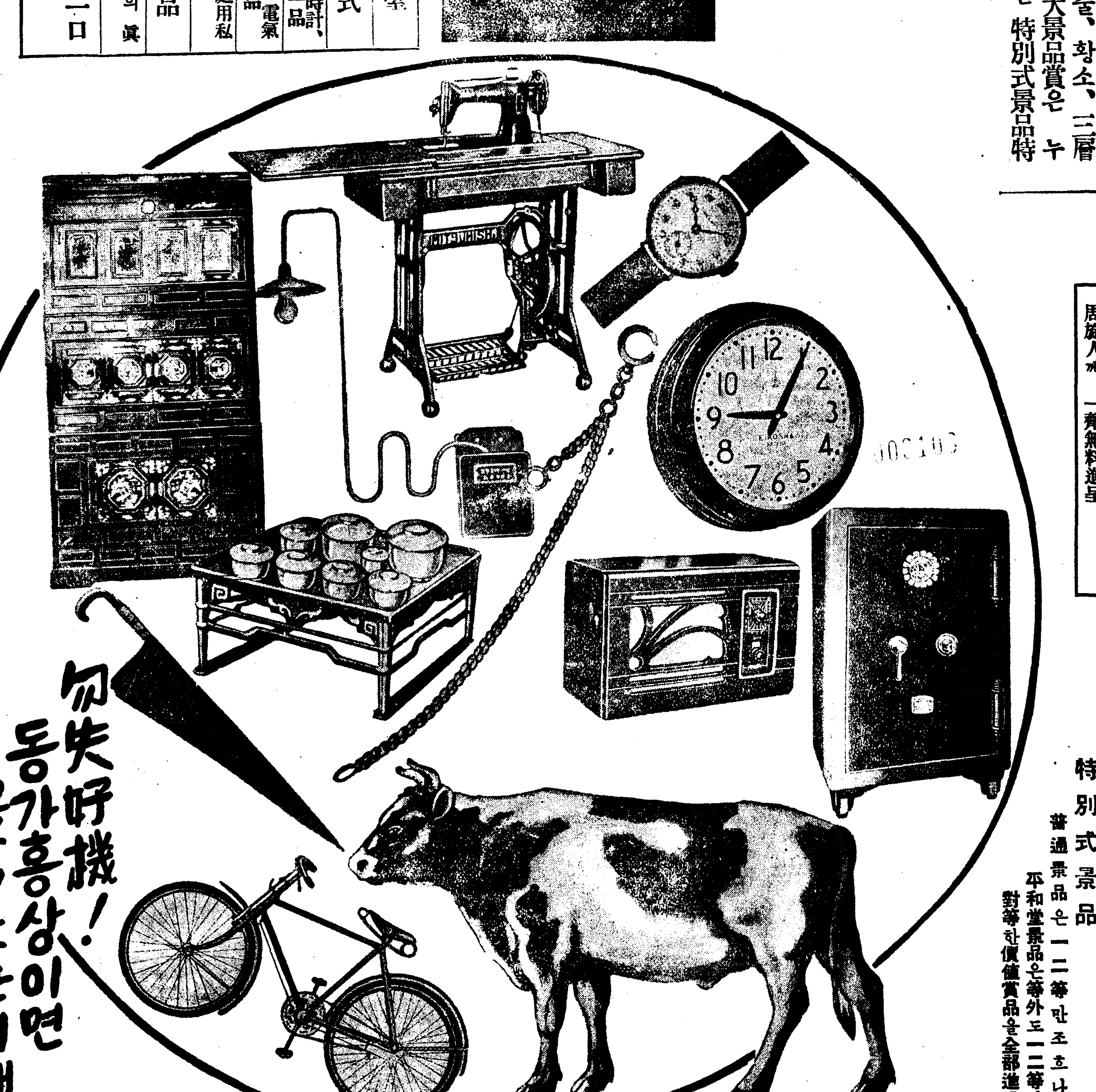
大景品種目

特等	一人	足踏裁縫機(발재봉틀) 一臺
一等	二人	純金時計줄 男子用 和信製品 一組式
二等	五人	黃牛一頭、三層자개장、十八金腕卷時計、高級大型洋服臟、大型鋼鐵重金庫中一品
三等	二十人	自轉車一臺、純白銅七牒盤床器一式、電氣時計(大型掛壁用)ラヂオ(四球)中一品
四等	一百五十人	卓上時計、緣付體鏡、毛布(요)、家庭用私設電燈一式中一品
五等	三百人	洋傘、世界一週萬年筆中一品
等外	全部	栗谷先生、金玉均先生、靑田先生等의 眞筆屛風書畵一組式

●特等으로부터 等外까지 全部當選、空鑯은 一口도無함 等外도 全部珍貴賞品

栗谷先生·金玉均先生等의書画十枚一組式全部進呈

「自力更生」「鮮滿一如」와同樣으로 オフセット寫眞 複寫眞品



男女老少를勿論하고

▲元氣가 不足한분 陽氣가衰弱하는분

▲胃腸이弱하고 口味와食慾이업고 飮食消化가안되는분

▲神經이衰弱하고 記憶力이減退되는분과 肺가弱하고 貧血症이잇는분

▲手足과 下초가冷하고肢節腰痛이잇는분

▲過飮過色人、咳嗽가잇는분、活氣가업고 여위고 早老하는분은 即時 百補丸을 쓰시요 全身五臟六腑를 다完補합니다

藥價

百補丸	特價	一劑	十圓
同	重用	一劑	二十圓
婦人百補丸		一劑	七圓

三劑以上 共同注文하시면 周旋人께 一劑無料進呈

一千萬婦人의大福音

아해가업고 남편의사랑이 업고 몸이약한 부인은 걱정마시요

▲모든부인병에령효한「부인백보환」은 본사가 발매한지수년에불과하나 그효력이탁월하다는것은 벌서세상이 다알게되엿습니다

▲누구나「부인백보환」을 써본사람은 경도가 조와젓다 자궁이데워젓다, 단산하엿든부인이 포태하엿다, 산후에몸이튼튼하여젓다, 젓이잘난다, 대하증이 업서젓다하고 저마다 칭찬이자자하며 날마다 기쁨에넘치는 감사장이답지합니다

▲이것은 모다 「부인백보환」이 어떤약보다도 그효력이 탁월한것을증명하는사실입니다

◆다음과가튼 증세가잇는부인은 즉시 부인백보환을 쓰시요

▲다달이 경도가 고르지못한분 또 경도가 만엇다 적엇다하는분

▲경도시에 하복통과 두통 요통등이 생기고 식욕이 업서지는분

▲자궁과 수족이 냉하거나 허리와 아래배가압흐고 냉한분

▲적백대하증이잇는분 소변이자즌분

▲자궁에 악취가나거나 뒤물기운이 잇거나 국부가 가려운분

▲신경이약하고 정신이흐리고 불면증이긴중

▲히스테리증이 잇는분

▲부부화합에 자미를모르는분 건강하야보이고도 아이를 못낫는분

▲몸이약하고 기혈이부족하고 안면이 창백한분

▲음식을 잘못먹거나 소화가안되거나 러이 잇거나 비위가약하고 변비증이잇는분

▲임신중에 몸이허약한분

▲산후에 허약한분은 쓰시요

婦人百補丸

調經胎胎·補血强壯

代々孫孫·鐵血子女

特別式景品

普通景品은 一二等만조흐나 平和堂景品은等外도一二等과 對等한價値賞品을全部進呈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京城堅志町五 · 振替京城五番 · 電光六三二番 · 六二三番 · 三三〇番

家庭

↑東京女美專卒業生展 쿠숀 羅娘均

애기가부모에게하고십흔말
까닭모를꾸중과 상주마는헛약속
아이들정신생활에큰타격을준다
겁나는건 어머니의 히스테리

여러가지로 말하는것

『우리집 아이는 말을듯지안허 큰걱정이야』이러케 걱정하는 어머니가 얼마던지잇습니다。그런데 아이들이 말을듯지안코 성가시게구는데는 아이만 나무래실게아니라 몬저 어머니 스스로가 반성하실일입니다。

첫재로 어머니가 너무 여러말로 애들을 들볶거선 안됩니다。애들이란 한창 자란는때 작난하는게 제일존일인데 이것을 이해하지못하는 어머니가 만습니다。그래서 한창 작난하는때 이래라 저래라하고 잔소리를하면 그말이 잘 애들귀에 들어가지안습니다。

그러므로 애들에게 무슨 말을할때엔 아이가 어머니 말을 귀스등으로 듯지안코 충분히 들을수잇는때를 보아 말슴할것입니다。

또는 한꺼번에 이말저말 아이가 미처 알아들을새업시 하는것은 재미적습니다 한가지를 일르면 가려말하자면 『인제는 작난감을 거더너허라』햇스면 아어가 그일을 다 마치도록 다른 일을또시킨다든지 하얏든는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어느말을 드러야올흘지

어머니한말듯하고 아버지한 말듯이 서로 틀려서는 아이가어찌할줄을 모릅니다。더구나 무슨일에 아버지는웰만하고 게신데 어머니가잘못햇다고 야단을치면 아어는 대체 아버지가 올흔지 어머니가 올흔지 모르게될니다。

또는 가튼일을가지고 어제는 어머니가 조금도 성내지안햇는데 오늘은 욕을하고 때릴아고까지한다면 어린마음에어느쪽이올흔지모르게됩니다。그러므로어머니되시는분은 항상주의하서서 적은일에라도 서로틀림이 잇게 말해야 그말이 신용이 잇습니다。

거짓말상금

아버지나 어머니가 약속을 지키지안허서 걱정입니다 함부로 상금을 주마고 약속을해서 명령에 복종을 시키노코 시치미를 떼때면 그담에 그애가 그런말을 고지듯지안켓습니까。

애들에면 과자를 줄테니 심부름을 갓다오라거나 빼나나를 사줄테니 다리를 치라거나 그래서 아이는 열심으로 그것을하고나면 그만 이래저래 시치미를 떼는수가만습니다。

그보다도 더구나 기막힌것은 애들을 함부로 위협하는것이다。어서하지안흐면 말숙에가둬두겟다던지 심부름을 갓다오지안흐면 때려내쫏겟다든지 이런것은 대단히 조치못한일입니다。

그러케하지안코도 얼마든지타일를수잇는데 이러케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점점 삐뚜러저서 드디어 반항하는 생각이납니다。

어른맘대로 성을내는것

아이들이 저이 맘엔 조금도잘못한것갓지 안흔데 또 박게뚜렷게 맛는다던지 야단을만나면 참딱합니다。

웨 어디가 어떠케 잘못돼서 그러는지 자기는 잘 알수도업서 어리둥절하는 경우가만습니다。그러면 무얼 잘못햇다고 사죄할수도업고 또 이러케되고보면 어린마음에도『자긴』라는게잇스니까 분한생각이 들면서 반항하는 태도를 갓게되는수가잇습니다。

어머니의 히스테리로 공연히 야단만나는것도 아이들에게는 대단히 엉충하고 또 조치못한 영향을 끼치기 쉬우니 어른되시는분이 아이들을 다루는데는 가장 만흔 주의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터에진주름살이 슬머시업서저요
그다지힘안드는일이니 한번시험해보십시요

여자들이 굴러지는것은 보기조하고 한사람게 기가서보면모양이나 지금은 그것이 여자의나이를 판하는 수효살이나 다름이업습니다。

대체 이굴러지는것은 살찐사람에게 만흔데 여윈사람도나이를 먹으면 자연히 아래턱이 보기실케 늘러저서 굴러이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에서잘 손질하면 곳칠수가잇습니다 어린보여에잇는 재료를 가지고 또 반드시 해보면 낫는방법을 이아래 소개하겟습니다。

一、첫재엔 탈지면을 둥그러코떠먹하게 뭉처서 그우에 까ー제 두겹으로 싸가지고 둑게가두번씩 직경어 다섯센치쯤되는 평평하고 둥그런것을 만들어놋습니다。그런다음엔 이것을소독저자리끄테 잡아매어 저무알리국자처럼 만듭니다。

二、밤에 잘때는 풀ー도 크림을 얼골에 바르고 가볍게 맛사ー지합니다。

三、얼골전체를 물고로맛사지를하고 난뒤엔아래로 잡니다。열번손끄테 힘을주어서 머리맛에 너어가지고 굴러진데를 히잇게를 너가지고 그손가락을차차 좀 귀밋트로 향해문질릅니다 어리케하기를와신회쯤합니다。

四、그다음엔먼저 국자처럼 만들어노흔것의 끄틀가지고 턱아래로부터 우둘향해처켜서 가볍게 두들깁니다 순서는지금 맛사ー지와 때와가티 좌우를 서로서로 열시번씩합니다 그후엔회장수를 탈지면에 무처가지고 남은크림을 훔처냅니다。

그런데 이굴턱이 아조 세지지안흔분이나 또는 에방으로해두는분은 이만한방법이면 훌륭히되지만 그때도마음이안되는분은 가ー제수건을 덧대면 둘에처써어 짜가지고 사진피가티 얼골을처서 머리위로 올려매십시요。

어러케한다음엔어이대로주무서도조코 한십오분동안그러케하고 반드시 우를하고 누어서신문가튼것을 읽으서도 조흡니다

이것은 좀 손질이만하도는방법이니까 사흘에 한번쯤이나 일주일에 한번쯤이조코 이러케몇번만하면 몰라보리만치 느러진 굴턱이 나어버립니다

머리털의위생
요새더유난히 가려운머리밋
손톱으로긁는건위험 먼저비듬을업샙시요

요즘은 사철중에 제일로 머리비듬이 만히 생기는때입니다 대체로 사람의 피부는 늘 맨우에 껍데기가벗고 그속에새피부가 나와서 소위 신진대사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머리비듬도 그맨우에 피부가 벗어저 떨어지는것인데 보통보다 훨신만히 떨어저는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필요이상으로 피부가 떨어지느냐하면 그것은병은아니나 몸에 여러가지 상태로 말미아마 생기는것입니다。

사람의 머리에서는 머리털을 기르기위해서 쉬지안코 기름이 나옵니다。그런데 그기름이 너무만히나오거나 나오는 기름이 우리는 모르지만 보통보다 성질이 좀틀려진다든가하면 갑자기 비듬이 만하집니다。

그밧게 우리가먹는 음식에도 만히 달렷는데 너무 기름진것을먹어도 그리고 또는 몸에무리한손고상으로 우리몸안에잇는 박균이 소화되지못할때에도 비듬이 섬깁니다。

또는 머리에 염증(炎症)이생기면 세포가 변하는 까닭에 역시 비듬이 만히생깁니다。그리고 오래동안 중병환자가 머리를잘감지 못하고잇는데 조끔만이 나허저 함부로 기름진 음식을먹으면 또 비듬이 만케됩니다。

그런데 비듬이생 어떠냐고하면 별로 생각해서 안됩니다。더구나 가렵다고 손톱으로 바바긁거나하면 그속으로 미균이드러가서 단독가른 무서운병이르키는수가 만습니다。

그러면 머리비듬을 어떠케해야 덜생기게하겟습니까。그저머리를 자주감어 머리밋과 머리털을 깨끗시하는것밧게 수가업습니다。

머리를감는데는 여러분도다아시는바와가티 더운물에 비누로 감던지 샴푸로 감던지하고 감은다음엔 기름을 조금바르는것이 조흡니다。기름을 바르는데도 머리끝에 바를것이 아니라 머리미테 발러야합니다。

그리고 비듬안나게하는 약으로 유황이 든것이던지 그러조흔 「문지」어는 약을쓰면 조흐테너무독하게 타서쓰면 안됩니다。엷게해서 쓰는데 머리미테 가볍게 다독다독해서 바를것입니다。

금붕어
실수업시 기르는법
첫대 쇠기운은금물 그다음은 메기와물

여름에 제일시언하고 보기조흔것은 금붕어를 유리어항에너허 기르는것입니다。그런데 이 금붕어는 잘기르면 깟대어시절 살어도 조금만 잘못하면 한마리 두마리식 죽어버립니다。

첫째 넷는그릇은 아모것이라도조혼데 유리항아리에 너흘경우는 밤에는 어두운곳에 두던지 그러치안흐면 무슨보자기가튼것으로 씨워두어야합니다。고기가 광선때문에 괴곤해서 원기가 업서지니까요。

희사기로 만든그릇은 밧갓흐로 보면 금붕어가 보이지안어서 떨어지만 안으로 들면 금붕어의 번걸이 곱게보이고 그로옹을 씻처내기도 쉬워서 조흡니다。그밧게 나무로맨든 통도 조흡니다。

다만 사기로 울린 양철대야의 사기가 떠러저 속에 쇠가 드러난것은 해롭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렷다던지 고기가 똥을눈것이 엉른 눈에뜨이지안케하려면 그릇미테다 조약돌을 까러두면 조흡니다。

다음엔 물갈어 주는것인데 할수잇는대로 맑은 물이라야산소와 유기분이 잇서서 조흡니다。호랑물 빗을 허드래스물통은 조치못합니다。그리고 담은 그릇이 너무 적으면 산소가부족하기 쉬우므로 매일 오후네시쯤해서 한번식 물을 갈어주는것이 조흡니다。

아조 몸시 찬물에 물온해쿠우니 떠서 하로쯤 지난것을 쓸것입니다。그리고 금붕어가 코구멍을 우흐로 처여들고 입을 빠금빠금하는것은 산소가 모자라는까닭입니다。그러타고 하루에 두세번 물을갈어주는것은안됩니다。

먹을것을 주는데는 동물성의것과 식물성의것 두가지를 석거서주어야합니다 몰만 주어서 내바려두면 여위고 힘이업서집니다。동물성의 식물로는 금붕어에게잇서서 제일가는 요리는누에 번데기 계란 물고기등인데 소곰기운이잇는 짠것과 기름이 적은것을 주지안흐면안됩니다。그리고 고기가튼것은 말려두엇든것을 주어도 조흡니다

식물성의 음식으로는 맹물에간 밀、호스마등이 조흔데 날것으로 주지말고 살작 데처거나 익혀서 연하게해서 조금씩 줄것입니다。

먹을것은 아츰파나제 두번주는데 오후세시쯤되거든 먹을것이남어서 물에둥둥뜬것은 죄다 건저내야합니다。

병에대해서는 제일 걸리기쉬운 병은 온몸에 힌점이 생기는 조부병(粗腐病) 아감지나입이 썩는 사부병(鰓腐病) 꼬리쪽이 썩는병 몸에 허여케 열분막이 씨여지는 네마리병등이 잇습니다。

어러한 병이든 고기는 원기가업고 한마리따로 떠러저 물미테 잠긴다던지 물우에 뜬다던지 무슨소리가나도 놀라지도안코 동융잇게 누지안코 조금식 짜르게눕니다。이러한 증세가잇거던 무슨병이던지 생긴줄 아십시요。

병든고기는 차저내는대로 곳 다른그릇에 옴겨노코 온몸을엷게탄 소곰물로 씻처주면 조흡니다 또는 고기에도 이가 끄이는데 고기가 몸을 그릇가에 비비대며 헤엄치면 그런줄으때로 조고만 그릇에 담고 이를 잡어주고 담배를 물에다 부벼너허서 냄새를입게하가지고 탈지면에 무처서 눈에드러가지안케 온몸을 씻은후에 다시맑은 물로 씻어주면 조흡니다。

못속에 기르는것은 못에 물이너무 세지안코 잔잔한곳에 길너야합니다 아조 여름엔 못을 한쪽빈 덥허서 발가튼것을 처두면 조흡니다。

어상파가티 주의하면 한마리도 죽지안코 얼마든 여러해를 애 들창가를 시원케할것입니다

우리차지

키

거적은사람이 키큰사람하고 이야기합니다。

『당신키는 내키 보다 크니까 저비행기가더 크게 더 잘보이겟군요』

『아무렴요』

『그러치만 땅의것은 나만치 못보실테니 딱하시겟서요』

(京城사람왕방울)

長篇小說 愚氓【29】
朴泰遠 作
洪祐伯 畫

거리의哲學者 (2)

어느날 매부리코 구경득은행정정집 사랑에서 잡담을 하다가 말끄테 「거리의 철학자」 이야기를 끄내 노핫다。그와는 달리 별로 거리로 나댕기는일이 업는『근동위』조원구은 언제나 그러한 거리의 소식을신기하게 듯는다。그러나 거리의 철학자 이야기는 다만 신기하게 여기는것으로 끄치지안헛다 다리 붉어진 대모테 안경이며 불붓지 안흔 담배꽁초며、또 엉은 의복이야 『코올렌』이든 무엇이든 그러한것은 사실 어떠튼 조탕 그의 절반벌어나 센 머리터럭이며、양복이 빼지고 귀가 큰 얼골이며、나이는 곰작 사십이 되엿슬까 말까한데 지나는 삼십전후의 여인을 유심히 보다가

『아니다。홀린는 사람이다。』

하고 중얼거리는 모양이

『어찌면 계집이라도 일허버려 실성한게지도 모르죠。』

구대사가 그러케 말하는것에 근동위 조원구은 마음에 놀랍파 의혹이 컷다。

『삽십전후의 여자를 보아야만 그런다까?』

조원구은 무심코 사랑대청에서 들더오는 나디오 소리보다도 좀더 큰 소리로 물어보고 저모르게 당황한 비츨 감추지 못하엿다。

『글세요。꼭 삼십된 여잔질라도、아무 여자나 보고 그리지는 안는 모양이라든군요』

근동위는 잠깐 고개를 끄떡어리고 잇다가 다시 뭇는다。

『다른때도 안녕기고 꼭 조로네거리요?』

『아ー니 종로서부터 조선은행 압까지 왼종일을 며번이고 왓다갓다 한답니다』

구대사의 말에 다시 근동위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떡이다가 마침 안에서 나온 갈득이가

『근동위 잠깐 들어오시랍니다』

대원님의 명을 전하자 말업시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갓다。뒤에 혼자 남은 구경득은 미친사내 이야기에 그처럼 놀라던 조원구의 태도를 잠깐 괴이쩍게 생각하엿스나 꼿 생각난듯이 벽에 걸린 시계를 치어다 보고

『어디 다녀오실나 갈까?……』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선하필을 한번 하엿다。

류명옥이가 신천오천서 학수를 알어 가지고 서울로 도라온 뒤에도 차저 다니느라 바쁜것은 구경득이가 하숙 먼점 하숙에서 이사짐을 차주느라고 한참 바뿌던 유명옥이를 발견한 뒤에 몇칠을 두고 다욱섬을 드나들며 그의 속을 떠서 알어내인 사실이다。여자편에서는 그처럼 열정이어도 학수는 시프든것을 알고 잇는 구경득인 조용로 그에게 마음이 업는듯 그일은 보고하지 안코 잇다。그러나 요며칠 둘은지 안허서 그뒤로 별일이나 업는지 얼마쯤 궁금도 하려니와 또괘도 잡어보고시퍼 다시 한번 선하숙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니까 근동위가 꼿 안에서 도라나온다。

『웨、그만 가시려오? 그럼나도 함께 나갑시다。』

근동위는 못에 걸리여 잇는 두루마이를 끄내들며 말한다。

『갑작이 볼일이 생기섯습니까?』

안에들어가서 무슨 명령이라도 밧고 나왓다 생각하고、구경득은 그러케 물엇스나

『아ー니 오래간만에 집얼 좀 올러가 보려고……』

하고 모자를 떼여 쓰고 압장을 서서 나간다。마루의 라디오는 마침 내일의 천기예보로 아침부터 흐렷다가 오후에는 눈이 올것십다고 말한다。

두사람은 가치 전차길까지 나왓스나 근동위는 마침 온 서대문행전차에 오르려 하지 안코、

『그럼 평안히 가시요』

하고 전차길을 건넌다。구경득이 전차에 올라 차장대에 선채 창으로 흘깃 내여다 보니까 그는 건너편 정류소로 가서 황금정행 전차를 기다리는 모양이다。

(새문밧 본집으로 나가지 안코 왕십리 작은집으로 가는 모양이로군……)

구경득은 문득 왕십리에 잇는 근동위의 작은집 얼골을 눈아페 그려보고 저모르게 빙그레 웃엇다。올에 설혼서넛은되엿다나 보지만、아이가 업는그는 스물칠팔이나 그밧게 안되게 젊고 어여뻣다。

(별안간 작은집 생각이 난게로군……)

그는 자장에게 돈을 내여주며 도 속으로 중얼거렷스나、근동위는 오늘만 그러한 좃흔 생각으로 작은집을 차저가는것이 아니엿다。

五月의살결이 기다리고잇습니다!

손끗헤조곰적은굉장한威嚴! 그것만으로도 レートクレーム의品質이조흠을 確實히알게다고들 누구나다말하십니다 그만치レートクレーム는 科學的으로實質的으로 卓越한クレーム입니다 有效成分은爽快히살결에滲透해서 新陳代謝를旺盛케하고 榮養能率을노피서 新綠의季節에마허지는여드름 부름等을께끗이一掃해서언제나 潑剌하고健康한若肌를約束하는クレーム입니다

化粧下에도比類업는クレーム!

クレーム의選擇法!

クレーム면은 어면것이나 똑가튼効果가잇다고혹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大端히잘못된생각입니다 다음과가튼 缺點이잇는것은 살결에有害합니다 허풋호로할터보아서처던거려는것이나 푸셜푸실솜처럼軟한것 甁속의容量이減하던지 금이갈라지든지하는것 水分이만흔것 얼마동안만쓰면 着色하는것等! 은도로혀살결을거칠게하고 여드름 부름等을 發生케할 念慮가잇사오니 使用치안토록注意해주십시요

レートクレーム (레ー도구레ー무)

現代學生風紀論
—그 社會的根據와 變遷相— (五)

朴致祐

무목적한靑年과 學業에 專念하여야할몸으로서 이것을 버리고 邪道에 떠러지게된다는것은 무엇때문일까. 두말할것업시 그것은 邪道의 誘惑을 이길만한 野心的인 理想을 세울수업는 탓이라고 나는생각한다. 理想의貧困이 그原因이란말이다. 예컨대 工夫하고 學校를 나와야겟다 適한일이라곤 하나도 업다면 어떠케 될것인가. 못지안허도 알일이아닌가! 하기는 다가리 門戶가 맥혀서도 그래도 學生이 그關心의 主力을 社會와 制度에 集中하고 잇슬수잇던 時代에는 野心과 覇氣만은 健在한 셈이라할까——어째든 요즘처럼 그러케 慨氣滿滿하지는 안헛든것이나 그러나 一次 그 꿈이부서지자 憤慨를 그 配田口書風紀方面에 求하게 될것만은 짐작하기에 어렵지안흔 일일것이다. 思想問題가 學生問題의 表面에서 一단 물녀 서기가 밥부게 風紀問題가 갑작히 드높아지게된데에는 이가튼 事情이 잇다고 볼것이다. 문저 높고도 큰 理想을 세울수잇도록 希望을주자! 사람은 누구나 未來가 한결더 華麗해보하지 안는限 現在를 犧牲하지는안는법이다. 이런點에서본다면 사람만큼功利的이고打算的인動物은업슬것갓다. 日常生活은 가장功利나打算을 떠낫다고 볼 宗敎的信仰에 이르기까지 이 心理가뿌리기피支配하고잇다는것은 例의 밀알하나가 땅에 떠러저썩지안흐면 百倍의秋收를거둘수 업다는 論理가 宗敎의 基本論理가 되여잇다는 事實에 想到한다면짐작할수잇는일이것이다. 成人으로서도 未來와現在와의 比較打算에 關한限 이처럼 甚하거늘況

가장미래的인 現在를 가진 靑少年으로서 未來에 대한 投資가 아니라 單純한喜捨에지나지못하다는것을 깨닷게된다면 어떠케될것인가. 그러기에 어지러워진現代學生의風紀를 바로 잡으려면 더퍼노코 嚴罰主義만을 能事로삼을것이아니라 學生의 將來에對해서 充分히 길을 여러줄만한根本對策을 講求한다는것이 조흘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對策이래야 神通한것이 잇슬理업서 생각되는問題로서는 平素에 學校에서들어온 가지가지의 成功美談 修養佳話가 校門을 나서자 그대로 實現될수잇슬만한 때라면 初期市民社會를 내노코서는 그리 손쉽게 求할수잇는것도 아니겟고 그러타고 中世와가튼 嚴格한 階級과地位如何에 對해서 一切의不平不滿이 所用업는 原始的인 身分制度를 지금 당장에 만들어낼수도 업고보니 結局은 學生各自의 反省을 기다리는수밧게는 업다고 ——어러케나 말해볼까?

鄕土文化를 차저서 第三 蔚珍篇 ⑯

南師古의 異蹟
—蔚…珍…行— (七)

崔益翰

蔚珍의山海絕勝에 相應人物을 하나내세운다면 누구나다 格庵南師古라고할것이다 南師古는 李朝中宗四年己巳(西紀一五〇三)에 縣南二十餘里雪嶺村(지금即今近南面水谷里)에서生長하얏다 벼슬은明宗朝의 社稷參奉天文學敎授에 그첫스나 그不遇落拓하얏슴을 可히想像할수잇다 公은 易學、占術、天文、地理에 無不洞曉하고 預言이 모다 奇中하얏다한다 當時 親友하나가 公의 屢次落科할줄을보고 얼러가로대 君은 他人의運命은 能히推算하면서 自己의運命은도 러어몰리서 年年히 科擧에虛行하니 엇진까닭이냐 하거늘 公은 우스면서 대답해가로대 私意動處에 能令術暗이라고하얏다.

鄕人傳言에依하면 公은 風水術에神通하야 當代宰相이날 山地를 國中에遍求하는同時에 自己親墓를 모르 九次遷葬하얏는데 맨나중遷葬地가 곳 蔚珍村後山(俗稱한재, 大時嶋)이다 첨에는 九龍爭珠形으로 아랏던것이葬事를마치고보즉 九蛇爭蛙形이어서 洞口에서 山을처다보고 慟哭해가로대 此山은 반드시無後하리라하얏드니 其言이 果然마자서格庵은 絕嗣하얏다한다 어에서 나와다한다 [illegible]

芝峰類說에 南師古는 일직 [illegible]人으로조차 [illegible]을 어더서 [illegible] 가는길에 一僧을 맛나서 그 [illegible] 가진 [illegible] 그대는 可히가르칠만하다 하고 秘術을주고 또 가로대 그대는 凡骨이아니니 [illegible]을 [illegible]하고 行하야 塵累를 超脫하라하고 그만 소매를떨치고 가버렷다 公은 일로부터 玄機를洞見하고 豫言이 모두神驗햇다한다

東西黨議가 처음이러날때에 公은 어느問者에게 대답해가로대 『東有駱峰、各馬交馳。西有鞍峴、革而後安。俄而東則爲南、爲小北、爲大北。西之得志、必於變局』이라하던것이 其後에 寄寄奇中하얏다고한다(格庵集)

韓南格庵　蓀谷李達

懸崖綸鐵然若木律　君平簾下更何人
床東弟子收遺草　玉洞桃花萬樹春

憶南格庵　梅月黃汝一

吾年十四至十八　慣見仙鄕長者風
月錯天根探獨樂　細圖馬臣歿尤工
皇輿謂至朋鶴後　壬亂知生乙卯中
近有妖星與白氣　九原安得起吾公

西行日記
—三墓와 雙極塚— (7)

林學洙

大城에서 約一마장 東南으로 나려오니 雙極塚이 門을열면 어추 十餘階의 層층계를 나려 地下로 긴羨道 그안에 前室이잇고 八角形의 두기둥이선 羨門을通하야 玄室이잇서 그篇額가大壇과 平갓다. 이까닭본것과 가튼方法으로보니 먼저 入口에는 두긴王이 奇怪한面貌로 버티고잇고 東西에는 靑龍白虎가잇스나 모다지여저 알더러와 굿센壁畵가 긴꼬리만이 남어잇다. 천장에는 第一持送石에 蓮華紋 第二에 瑞禽紋 第三에 雲紋 中央에 蓮華紋이잇서 특히瑞雲紋은 寒鮮한푸ー즈와 色의 配合이 아름다웟기 前室에서 옷들어다. 두기둥은 벽파마찬가지 白土칠을 한것으로서 住

정과 벽화이 엇서 北壁과가 듯숨의 그림이 잇섯든듯하나 剝落되엿다. 그러나、제일깨끗이남어 그려잇고 調和된 벽과 함께 눈에 뜨이게 되는것은 東의 九人夫婦圖이다! 中央에 지것이잇고 복색으로 보아 下女인듯한 少女들 先頭로 [illegible] 少女를 그다음에 主婦 그다음에 少女 그다음에 男女五人이차 온이와 緋緞인 [illegible] 男女五人이 차례로 따른다. 하고도 긴 스카ー트를 피여오르는 어며 흑은合掌하고 흑은고개를 드리우고 흑은 허리를 구피고 흑은 뒤도라보는 等 變化無雙한것、大人과 小人의配置、처음에 셋 그다음에 셋 그다음에 하나 若干 間隔을 두것들이 모두 極히 自然스러웁다. 얼굴들의 端雅함과 衣服의 美麗한것은 高貴의風이 잇스며 默默하고 嚴肅한 表情은 슬프나 그러나 참고 感激을 가추어 따르는 그들의

[illegible] 그중의 [illegible] 人物에서도 여기 [illegible] 보기 [illegible] 아 主人이 먼저 [illegible] 무덤에 장사하얏는가? 천장에는 第一持石에 日月紋 第二에 [illegible] 紋이 잇고 中央에 蓮華가 잇는데 第三의 [illegible] 흘럿다.

어바게 [illegible] 와 三女人과 [illegible] 수나 지금은 [illegible] 옴겨갓스므로 [illegible] 빨리버렷다.

오늘은 가기를 재촉하는 案內者도 업스므로 마음껏 前玄室을 來往하며 바라다가 두時間에야 밖그로 나오니 벌려 눈이 부시다.

나는 墓문이 가슴에차 잠시간 墓의周圍를 거닐엇다. 一千五百年前의 빛나는 우리의자랑 이壁畵들이 지금도 저 새여나려 죽죽히 저즌 벽에 작고작고 지여지고 뭉어저갈것이 아닌가? 이로코 二年만 더지나도 또달릴것이다 이대로 버려두면 二十年인들 어찌 잘 保存되랴? 좀더 積極的인 保存方法이 업슬까? (完)

學笑消息

詩人朴龍喆氏는 그동안 宿痾로療養中이드바 마침 내 지난 十二日 午後五時半 市內社稷町二六二番地 自宅에서 別世하엿다. 享年三十五

新刊評

盧春城詩集 『白孔雀』評

咸大勳

春城은 文壇生活의 아름다운 花園속에서 잠간 자최를감추고 七八年間沈默을 지키다가 最近 詩集『白孔雀』을 刊行하엿다 全部三十五篇되는 新四六版의 美本으로된 이詩集은 그詩의 거의全部가 玲瓏한 이슬처럼 아름답다맨처음에 실은 『여름밤』이 보드라운다는거기는 참으로아름답게 고흔 비단결이 흘러넘쳐다 『울타리에매달린 호박꼿 앵두나무』 같은詩 거기는 밤에 속작가는 반속 거기는 밤에 춤추는 [illegible]

꿋업는 哀愁가 잠겻스니 『지난밤』이라든지 『갈메기』라든지 『雪夜』 『所願』 가튼것은 꿋업시한 개 아름다운 꿈을쑤어저 헤매는 作者의 魂의애닯음이 잠겨잇다 그리고 『夜宴』 가튼것은 故鄕을 그리는 그純情이 가득 잠겻다 『망송물을피워노코』 이야기하는 農村! 거기는 素朴한 시골의民情이 如實히 나타낫다 이제이詩集에서 또한가지面을 다시 차즐것이 잇으니 그것은 作者의健實性이다 바로 『行進』 이그것이다 거기는 哀愁、鄕愁의 애닯은 꿈이업시 健實하게 살러는 意慾이 복바치잇다 이詩集에 잇서서 나는作者의 發表順을 알길이업서 一言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나의본바에잇서서는 少女와가튼 哀傷에서 벗어나 成長한 어른이 故鄕의 山川 民俗 乃至朝鮮의 영혼들을 그 [illegible]

長安今古奇觀…⑥

애드바룬

林和

예해식 만곳에를 갓다가 서울로 도라오면 얼마間은 市街의 風貌가 變해가고잇는것을 發見할수 잇는데、아모래도 京의 입무에 金이(錦)가 한두개식 느러가는판밧게는 아닌것갓다.

넓은 都市로부터 말죽혀 近代都市가 生長한다면 언제나 非常한 變態이 必要할것이다.

이를테면 地震이라든가 戰爭이라든가 이런 天變이나 地災가 都市文化의 新陳代謝를 促進한다.

그러치안흐면 『큐ー욕』파가리 最初부터 아무 傳統업는 荒蕪地에 벼룩만 차하올니든가 『런던』이나 『巴里』 가티 百年이 넘게 새文化가 낡은都市를 消化해가는 지리한 必要할것이다.

그래도 旅行家들의 見聞錄을 보면 아즉도 西歐의都市는 十九世紀의 殘滓를 保有하고、『亞米利加』와 都市에서보는 現代味와 比較할수는 업다고 한다. 어느게 조흔냐 하는것은勿論 速斷하기 어려운것으로서 인

이에기할게 못되나 우리京城의거리는 어느便에 屬하느나 하면以上의 어느便에 끼일수도업고 또한 압끼을수도업는 말하자면 철저한 中途半端의都市라 아니할수 업다.

非常한일이 업지는 안엇스되 이러한痕跡이 업고 荒蕪地에 연장이 갓다하되 亦是 스는집은 陳腐한 『루네산스』 三層이고 近代文化는 드러오지 五十年을 못넘는다.

그래서 집을 나서면 昌慶町一帶의 現代住宅街를 도라나가다 얼마가노라면 百年前에도 잇섯슬 골목길을 나고 電車를 내리면 『고르베제』式 飮食店에서 洋刀를들고 『빠ー프』를 잘는든 호衆이 荒唐한 一驅의道樂을 經驗한다.

여가운데 적어도 百五十年의 歲月이 가로노혀잇서 나는 外出할때마다 百五十年을 約三十分에 旅行하는 奇妙한 體驗을 한다.

우리의 머릿속은 이러케 團體한 旅行에 날마다 疲勞하고 날마다 衝擊하야 인

제 大氣와 海洋과 蒼空을 품긴 一朝에 喪失하야버렷다.

지친다리를 잇끌고 다시 昌信町어덕을 올으노라면 급작스레 都市住民으로서의 自己에 對한 意識이 머리속에 點火되는것이다.

각금 이러케 나는 혼저서 서울市街를 내려보는 習慣이 잇다. 이미 날이 어두어 三角山그림재가 鍾路一帶를 덥흘때 하날에 버뜨고요 마하시 하날에 [illegible] 천 醫醫에 [illegible] 壯하거니와 요지음 午後 明治町 近處에 쑈리를밧고 南山우까지 올나간 『애드바룬』은 大都市의 『관라지』는것이다 黃色球形에 鮮和된 몃 百立方 『리를』의水素가진 부는 우리의 머릿속에 잠자는 蒼空에의 鄕愁를 벗치는 分明한 照明彈이다.

그아래 映畫의線이 써잇솔때는 불붓는屠殺場入場券을 사는 聰明한 市民들의 顔面도 陽熱되며 多彩한夜眠에 손움대보고 실흔 衝動을 늣기는때도 잇다.

或은 잇다금식 청고를 만나가는 茶房 또는 『지브랄터』이나 誘惑을 떠나온 세帶戀의 가벼운 幽愁과 印刷 『잉크』의향그런 냄새를 맛치는 書籍의 面影이 鮮明하다.

그러치만 다한번 솔직라고 『애드바룬』파대여까지올라가면 熱도 업고 光彩도 업고 自由도 업는 鐵筆한

陽이나 그것은 사로잡힌太陽이다.

分明히 京城의 하날에잇서 『애드바룬』은 第二의太陽이다.

그래도 나는 아츰 가튼 때 新鮮한 光線이 밝고 香氣에 들오는 『애드바룬』을 우리의 都市에 잇이 가장 純粹한 同時代者로 共感한다.

목업고 鮮하드래도 하늘을 向한 가벼고 自由로운 [illegible] 를 나의 머리에 大氣가 必要할때 『애드바룬』을 바라보면 나는 커다란 것을 한번呼吸하는것갓다.

市民은 來日부터 『애드바룬』을 사랑하는 또한가지의 習慣을 듣고 必要가잇다.

(鄭玄雄畫)

新刊紹介

▲ 南鮮公論 第三十五號 發行所 晋州邑鳳町三四三 南鮮公論社 定價 一部十錢

▲ 藝光 第六十二號 發行所 天市十間房第五區 藝光社 振替天八四八番 定價 一部五錢

▲ 幼年畫報 五月號 發行所 平壤府南城里一〇ㅇ二의四九 一千篤行社 振替京城一八七一〇番 定價十五錢

산전(山田)이 이십여평 잇는데 그중 는 십여마지기와 좌우 산(山밭)에 널녀잇는 밧 오륙일경이 장목사가 방매하겟다는땅 이다 남어지 땅은 신천읍(信川邑)에서 포목상보는배거더 (裵...)의 소유다.

유구장(柳區長)과 그의아들지 서(致瑞)는사랑압 퇴에서서 저 무러가는 봄날 황혼에 뒤덥혀 는 들을 어리가지가 푸르릿슬때 고 울려오르는 백양목 사이로 내어다보며 주고밧는말이다.

유구장은 까부라진 허리를 묵처서 마음것펴고 눈에 정기를 도라 기름끼도는 들을 구미가 도는 듯이 살펴보다.

『벌써 어 손이 각 퍼졋겟구나?』

『내귀에까지 드러왓슬때는 아마 알만한 사람이 다 알엇겟죠』

『그럼 알면 사고시퍼도 우리손에 오기는 제사자 틀녓다』 하며 유구장은 약간 실망하는 태도를 가진다.

『그렇더래도 오늘 예배당에 갓든 예는 저 땅이 유조에 적합하니 유조씨자 중에서 사도록하라고 장목사가 말하드래요!』

씨만 삼십여호 잇섯고 타성은 한집도업서 남부럽지안케 지내왓다 그러던것이 근년에는 퇴폐하여 유씨가 열집도 못남고 타성이 이십여호나 칠업해서아주 빈촌이 되어버리고 말엇다 유존은 조상때부터 사악코승이를 돌아 예배당동리로 경울 내고 이여서다녔다 그렇든것을 근년에이르러 뒷산 셔장(石)를 파울내고 바로 넘나드러서 유 길을 내고 바로 넘어드리서 조재몰이 예배당동리로 소다저 몰의에 적빈해젓다고 읊으니 올 은 뒷산허리 끈은것을 한탄했 다 가난은 나라도 못구한다고 푸념만 할밧이지 구원해낼 도 리가 업는데 이번 기회만은 유존의 비한을 구하는데 하늘 여 준 조혼 기회엿다. 만약 유조서 어 기회를노쳐 아귀세인 손에 그땅이 드리가 면 다시는 살어날 도리가 업 슬것이다.

남어은 유조자마자 종종사람들은 한해씩 두해씩 구장네 사랑으로 로모여오기 시작햇다.

어제까지도…아니 오늘아침 까지도 한동네이숙어 늙어지근 해잇든 사람들이 오늘저녁은 갓 잡은 생선가티 생생한 기운이 돌앗다。

유존 뒷산人밭이 좌청룡(左靑龍)우백호(右白虎)로 둘렀는데 그 안에 얌전하게 조밀려잇는 들 ……이들에 논이 사십여마지기 붓이 들어안즌 곳이 유촌(柳村)이다

예배당동리에서 창가마한 산 마루를 너머서면 고색이 창연한 노송(老松)이 섞고게 백여 잇고 동리압 동쪽으로는 애치 백양목(白楊木)이 쭉 징늘지고 서잇는안에 초가십여호가 오 붓이 들어안즌 곳이 유존(柳

『장목사가 우리동리압 논밭을 팔려고 매장으로 내것대요』 『그러면 우리중중(宗中)에서사 게하지!』

『전가튼댄 살수잇겟지만 지 금이야 허찰것업는 빈동어니 전 종중이 다 떨어나댄도 어림도 업죠』

『아무렇게 해서라도 사놓키면 하면 유존이 허리며 글리를 펴레데……』

『유촌서 땅에 허기가저 잇스 니까 좌장을 바더먹을려고 그 러겟지!』

『유촌에도 어수룩한 신사들이잇 스니까 제 체면을 차리노라고 그러든지도 모르죠』

처서는 입을 벗숙 내밀며 코 웃음을 처다.

『그저 매알거나 그만것은 살 돈이 엇스면 문제업을텐데……』 『지고 노코보니 그렇바게!』

하며 유구장은 여든한숨을쉿 는다.

『아무엇스면 살수닛겟 칠촌석건 여러이 우리사랑으로 옵겹요』

『그러면 하라버지도 오시라고 하지!』

『네!』

처서는 대답하며 유조지를청 하러 동리 온쪽으로줄라갓다.

예 어떠코흠 법이야말로 류존의 중조부대에만해도 알뜰히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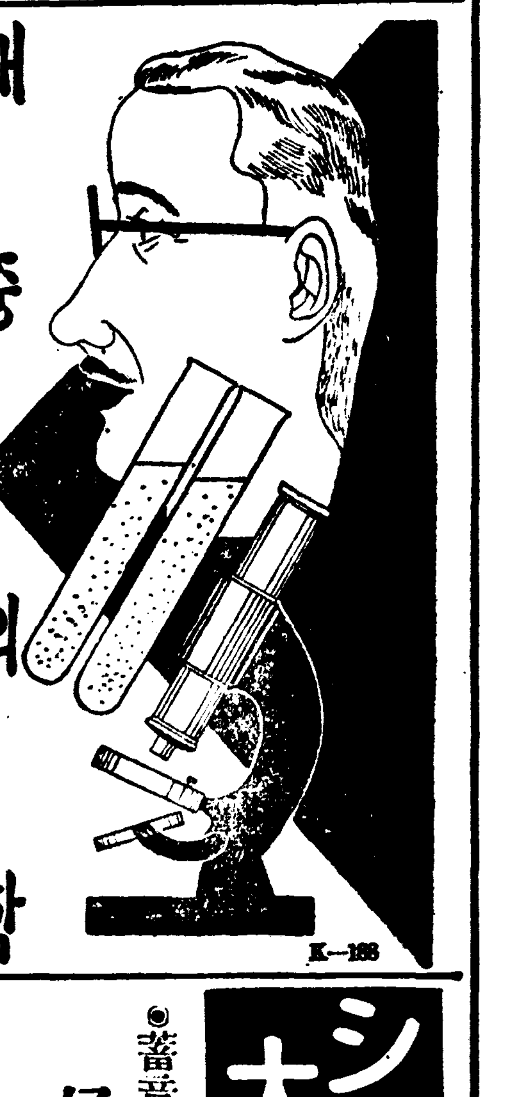
本報當選作家短篇리레ー

晴曇 (一)

車自鳴 作

崔根培 畫

[illegible]



대중의학

림질은 二重殺菌을하여야만 곳 根治됩니다

東京日比谷病院長 醫學博士 深瀨周一

림질을 속히 고처버리실여 러분! 여러분은 림질의병회 근이 어느곳에잇스며 그로말 미암아 생기는 모든 무서운 고장을 깨닷지 못하고 다만 재래의 습관에따라 內服藥을 써서 처치하시나 이미 여러 분이 경험하고 계신바와가티 아무리 조타는약을 장복하여 도 根治가 못되고 늘 재발 되고잇지 안습니까!

……◇……

어째 그러냐하면 림질은 男 女국부의 뇨도조직속에 병균이 들어가서 그곳에 홍집을만들 고 못게하며 점점깁게하면서 점점 속기퍼 파고들어가고잇 는 병이만큼 무엇보다도 먼저 병회근인 뇨도점부조직에서 活 動하고잇는 淋菌(림균)을 아죽게하여 이며 상처난곳을 정한이치 야만 속히낫는것은 胃腸을경유 인데도 복구하고 內 하야 외간의약기운이 오줌에 석겨서 그곳에이르게되는 너무도 藥으로써 낫기에는 생겨잇스며 더구나 죽지안는 강 한 병균인까닭에 그러케 根 治가 되지안는것입니다

……◇……

그리하야 世界醫學界에서는 과 학의 진보에따라 먹는약으로는 림질이낫지안는다는것이 명백케 되엿스며 그대신직접 병회근에 (국부속에)치료하여야만 림질을 고칠수잇다는것이 共通的인케되 엇습니다

그러나 국부에 직접약을너서 은제(銀劑)일지라도 정당한것이 는수리병도 일장일단의 폐단 이잇서 유감이적지안엇습니다. 즉 강력한살균력을 가진 국소 의 치료제에서는 도저히 몰 수 업든 二重殺菌療法이 강구 되여잇는까닭에 아무 부작용의 염려업시短時日안에 根治시켜주 므로환자들은 정신적육체적고통 에서벗스는약보다도 速히 버서나 게됩니다

大發明되엿습니다. 世界的 發明中의 림질근치약이 즉 强力한殺菌을가진 『부라온 銀겐고ー루』가 그것이니 재래 의치료제의 결함과 약점을 모 두 보충시킨 치료약으로써 적 은分量으로 막대한효과를 나타 내는약이며 强力한殺菌、消炎、 收斂、吸收作用을가지고 더구나재 래의 치료제에서는 도저히 몰 수 업든 二重殺菌療法이 강구

어째 二重으로殺菌을 하여야만 根治되는가!

부라온銀겐고ー루는 의사전문 이니 急性증세이분이나 만성고 질이되신분이나 겐고ー루一號를 쓰시고 겐고ー루二號로 거듭치 료하시면 百發百中으로 근치됩 니다

그리유를 얇기쉽고게說明한다 면 一號로치료할때 림균이죽으 며그와동시에 홍집도아물게되나 그와더부러 그조직세포의변화에 따라 병균의성질도 달러지는것 이生기게되나니 어것은 一號로곳 처야만죽게됩니다 그러므로살어 잇는 사람의살속인만큼 一號의 약성질파二號의약성질을 한꺼번 에석거서쓴다면 결국一部分밧게 치료가되지안케되므로오즉『부라 오銀겐고ー루』二重殺菌療法만이 그효능을 가지고잇게된만큼 림 상치료에는 물론이요 일반자택 치료에서도 적확한 全治기록을 나타내이게된바이오니 조금도주 저마시고 속히 엇중한 조섭파 함께 一號와二號로 치료를시작 하시사 근치의기쁨을 어더주시 기바라오며 家庭生活을하시는분 은 반드시 부부협력하여서 두 분이 가티 곳처야 되오니 부 언게서는『三號』로 치료하여주 십시요、

……◇……

약한방울로 단二分間이면 치료효과가 나타나는약

……◇……

연 부라오銀겐고ー루의약가는 보급약(각종병원) 一圓九十錢 十七日分、三圓八十錢의 구별이 잇사오니 본보독자에한하야 송 료를부담하고 대금인환 으로도 송약해드립니다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河原商店 (振替東京三五〇一九番)

실험보고서 무료진정

살은 闘病報告

오래동안別別藥에 속앗든 저도

(高敞) 張成福

……그동안 조타는약은 다써보앗다 하다시피 장구한시일을두고 치료를 해왓스나 조금도 낫지안튼제가 貴社의藥으로 根治가되엿스니 이러케 기쁜일이잇겟습니가 하도 기뻐서 의同病者에게참고로 하고자하는바입니다. 걸린지만六年가량되오니 처음 겐고ー루一瓶中瓶을쓰니 까새삼스럽게고 름이만히나오게 되고 솟알흠기가 돗드니그것도二三日에개이고 약이갓답시기에는오즘속에 갓금실밥가튼것과 꼬름들리것가 튼것이다소 석기게되엿습니다

그래서 二號를 거듭게속하야在 入햇드니 열흘 만에 아주 개 어고 몰로 가 니다……

……병계되엿습니다 ……염려삽아남 아지를 다쓴후 飮酒를해도 무 방하며 이번환 절기에도 再發 되지안홈으로와 실한 근치의기 쁨을엇게되엇습

학생시대의過誤를 청산하기까지

(京城) 申萬成

……가정의불화 도 하나의원인 이어지마는 나 의그릇된생각으 로 學生時代는 참으로 난잡한 生活을보내엿습 니다 인제는多 幸히 그生活을 청산하고 진실 한사라리맨의행 복을누리고잇지 만은 그때의亂 脈의殘滓인 림 질은 아주慢性 고질이되야 전 도아양한 나의 압길에는絕望이 되야 이때문에 結婚問題도주저

하고잇섯습니다 아直接經驗者의저 룰 救해주신것이 貴社의 겐고ー루의廣告입니다 는信用을두지안 튼저도 佐藤先生의局所 療法에는 嘆服 하엿습니다 短 時日안에 少額 의치료비로써根 治의기쁨을 어 덧스며 結婚도 멀지안흔날에잇 다함을 아울러 報告하오니 옷 納하심을 바랍 니다……

シスター商會大サービス

●蓄音器界空前의巨砲

好時機는 또 업다 곳申込하십시요

∞申込規定

●申込은白紙에 朝鮮日報라記入하야 手數料三十錢封入해 手數料貼付하야보내십시요.

●切手封入申込者에限하야本社發賣名曲寶本「最新現代歌曲集」及「씨스터ー레코ー드歌詞集」의美裝全集一冊과 씨스터ー레코ー드 割引券을 付함.

●引換金은規定價의共히除外함.

이優秀한蓄音器를— 어째 無代進呈하는가

▲꼭 한번 읽어보십시요

씨스터ー携帶用 蓄音器、레코ー드 無代進呈

소슴까지 各社에서 販賣하고잇든 蓄音器레코ー드의갑은더러나비싸나 당 其理由는各社가 猛烈한宣傳戰을 함으로其費用만이라도莫大한것입니다. 이實用이機械一臺레코ー드一枚에 包含되여서、結局여러분이빗쌋宣傳費를支拂하고잇는것이올시다 우리社에서는各社의激烈한廣告戰에 合流하는것을避하고、宣傳費의一部를가지고여러분에게實物一臺식 進呈하야其優秀한眞價를알리는同時에 短時日에坊谷谷에까지도우리씨스터ー의蓄音器를한것을알리고저 宣傳을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그러나 蓄音器거저 바러가지고여러분이 우리社에 ……

東京市本所區綠町三丁目四番地 代理店募集 (全國一市一郡에敎名式 希望者는左記로) 合名會社 シスター商會 電話本所大七〇〇番

申込先 東京市本所區綠町三丁目四番 シスター商會 宣傳部 四錢切手

申込樣式 申込書 新聞名 住所 氏名 ○○縣○○驛

●無代進呈의蓄音器는運賃當商會負擔하야鐵道便으로 로보내오니近處驛名을 必히記入하십시요

品質優秀 堅牢保證

實物縮寫

最新式裝置完備 無代進呈의蓄音器 定價貳拾八圓也

寸法 縦 一尺一寸五分 横 九寸八分 高サ 約 十三寸三分

産業

滿洲北支는어떤곳 그産業經濟的價値如何 ⑤

產業視察團을보내기前에

第二、農業

北支經濟는 農業本位이나 山西厚和(綏遠)察哈爾三省과 河北 山東二省과는 自然的條件에 關한 相違가잇다 卽後者는耕作本位요 前者는 牧畜의 要素가 多分히 包含되여잇다 北支農業의 槪況은 如左하다

省名	戶數(千)	農戶戶數(千)	總戶數에對한農戶의比率(%)	耕地面積(千畝)	畓	田	農家一戶平均畝數
河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山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山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察哈爾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綏遠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北支의全支에對한比率	一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註 畓、田의畝는 日本의六畝二合七勺 卽二百坪弱에該當함)

戶數로보면 總戶數의 八割六分은 農家로 全支의 七割四分보다도 高率이바 이것으로보아 全支에對한 北支農業의 位置가 相當히 큰것을알수잇다 또總戶數는 全支의 二割弱에 不過하나 耕地面積은 約三割을 占하야 農業地帶로서의 黃河流域의 重要性을 證明하고잇다 따라 黃河氾濫에對한 對策이 過去에도큰 問題이엿지만 未來에 對하야도 重要課題이다 다음中南支의耕地의 重點이 畓에잇슴에 對하야 北支農業의 中心은 田作에잇다는 데그特異性을 엿볼수잇다

또作付狀態를보면 田作地域인만치 그作付가 太半田穀일로想像하기어렵지아타

北支農耕地主要作付面積 (單位千畝)

	米作	小麥	高粱	粟	大豆	玉蜀黍	大麥	棉花	落花生
河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山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察哈爾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綏遠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	—
山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註意) 耕作面積에對하야는 前表參照

北支의 主要農産物은 左表와如히 小麥、粟、高粱等의 食用作物과 棉花及羊毛等이다

北支省別主要農産物産額表 (單位千市擔)

	河北	山東	山西	綏遠察哈爾	合計
小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高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玉蜀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豆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甘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落花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黍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棉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羊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註 自一九三一年至一九三四年 平均數 一市擔은 五十瓩에該當함)

棉花 支那는 米國、印度에버금가는 世界第三의 棉産國으로 全世界産棉額의 約一割을 占한다

只今 北支의 産棉狀態는 우에서 본바와갓다(察哈爾、綏遠兩省에는 棉花生産이업다)

그리고 北支三省(河北、山東、山西)의 平均每畝産棉額은 二十六斤으로 이를 全支那平均二十二斤에比하면 約二〇%나만허 이것으로 보더라도 北支가 全支中棉作하기에 가장 適當한地帶인것을 알수잇다 이支畝二十六斤의 收穫率은 反當四十三斤、一에거이該當 二百二十二封度에 該當하야 埃及의 에이커當四百封度에는 達하지못하나 米國의二百封度 印度의百封度에 比하야 훨신 優秀한收穫率을 넘수잇다

米棉과土着棉=北支棉花에는米棉種과 土着棉種이잇서 山東에서는 前者가 六〇%、後者二〇%、河北省에서는 前者三〇% 後者七〇%의 比率이다 土着棉은 粗毛、米棉은 細毛인데 米棉은 그收穫에잇서서 土着棉을 훨씬 超過하며 또 土着棉은 一般의 需要減退와 對日輸出의 激減으로 말미아마米棉栽培가 漸次增加하여왓다

如斯히 北支의 農業은 小麥、大豆、棉花、落花生等을 現在自給하고 相當한 餘力이 잇서서輸出하고잇스나 一方他必需物을輸

第三、北支貿易

北支의貿易의槪要=最近北支의 對外貿易은 依然 不振한狀態에잇는데 이는 各國의 金本位停止에 基因한 金價의 低落과 銀의 高騰、또이것이 米國의 銀政策에 拍車를 加하야 支那는 銀貨에 依한 影響이 甚하야 輸出은 停滯되고 이에따라 購入力은 低下하야 輸入을 激減시켯다

그우에 滿洲國의 獨立으로北支는 有力한 市場을 喪失하야 그打擊은 一層深刻하다 다음北支貿易의 九〇%를 占하는 天津及靑島의 主要輸出入品의 內容은 如左하다

天津及靑島二港의主要輸出入品內譯 (單位千元)

出		入	
落花生及油	[illegible]	人絹絲及布	[illegible]
棉花	[illegible]	砂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材	[illegible]
羊毛	[illegible]	化學藥品	[illegible]
豚毛	[illegible]	羊毛製品	[illegible]
葉煙草	[illegible]	紙	[illegible]
카-펫트	[illegible]	機械類	[illegible]

▲年度는 一九三四年(昭和九年度)
▲輸入品의單位中金額以外의 金額이다

北支의對日貿易=過去에는 兩國의 政治的原因에잇서서 多少의 消長이잇섯스나 大體로 輸出入이 五千萬圓乃至七千萬圓을 오르내리고잇섯스며 昭和十一年과가튼해는 對北支貿易은 全支貿易의 三八%乃至四五%를 占하엿다

第四、北支의列國利權

鐵道利權=列國의 投資關係는 北支各省의 財政機關에 對한 借款、鐵山에 對한 投資及其他産業投資로 分할수잇는데 이를槪說하면 如左하다

國別對北支鐵道關係借款額 (單位元)

	借款額	百分比
日本	[illegible]	[illegible]
英國	[illegible]	[illegible]
白耳義	[illegible]	[illegible]
和蘭	[illegible]	[illegible]
佛國	[illegible]	[illegible]
米國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一〇〇・〇

이外、開灤鐵道는 白耳義資本을主로하고 이에英、和二國이加하엿스며 同成鐵道借款에는 佛白의資本이 交錯하고 浦信鐵道는 英國、隴海、高徐鐵道는 日本의 各資本이 獲得하엿다 그리고 이中에는 利權만 獲得하고 아직着手되지못한것이잇다

日本의 對支投資는 如左하다(昭和十年六月의 에코노미스트誌調査에依함)(單位百萬圓)

一、借款에依한것	
財政借款	一四二
鐵道借款	一六四
實業借款	二四六
交通借款	七六
軍事借款	一〇三
以上合計	七三〇
二、投資形式을取한것	
山東省	一四〇
河北省	四三
以上計	一八三
三、企業에依한投資	
靑島紡績關係	五〇
山東省燐寸、製粉、倉庫、搾油等	一五〇
天津의東拓投資	三五
北京의正金、東亞興業、三井、三菱等	七
以上計	二四二
總計	一、一五五

列國事業投資=北支에잇서서의 直接事業投資는 靑島、天津이中心으로되엿는데 天津의 日英佛의 電力、電車、電燈、日英의 窯業、英國의硝子及曹達、米國의 카-펫트毛織工場、日本의紡績等 靑島의日英米希臘의煙草工場、日英의搾油、日本의屠殺、紡績等이다

日本의 津石鐵道(二千五百萬圓)、天津、石家莊間의 二八八粁)와 太沽築港(三千萬圓)의 建設이 着手或은 計畫中에잇는것도잇고 其他北京、天津、濟南、靑島의 無電線、興中公司와 電力關係의 共同出資에 依한 天津電業、惠通公司에 依한 北支、大連間의 航空路의 開通 山東省의 炭鑛投資等割目할바가 잇슴이다

우리는 本社産業視察團을 보내에 際하야 極히 簡單하나마 滿洲及北支의 産業經濟의 槪略을記하엿다 이는 勿論文字그대로 槪略을記한것으로 經濟的特性을 紹介하엿다 今般視察團이 無限한 資源을가진 저땅을 視察하고와서 우리産業에 資하는바잇다면 本社는 勿論이오 우리産業界를 爲하야 極히 祝賀하여마지안는바이다 北支滿洲의紹介는 簡單하나마 이것으로擱筆한다(完)

硫安의配給統制 明年度부터强化

今年度成績보고再檢討

統制第一年인 今肥料年度도不過二個月半밖게 남지아니하는데 配給統制의 實績도 明瞭하게되엿스나 現行硫安配給統制機構는 相當한缺陷이잇다고 各方面에서指摘하고잇다 卽中央配給統制組合의無力 地方組合의 劃一主義에서온 經濟事情과의遊離 其他에關聯하는 大小幾多의缺陷을露呈하엿스므로 總督府農林局에서는 其是正에對하야 여러가지 硏究를進行하고잇는데 農林局으로서는 今年度는 所謂試驗時代로 本格的統制는 明年度부터 實施할意向이엿스므로 來八月부터 開始되는 新肥料年度에는 統制의完璧을期하고調査를進行하고잇다 그리고 問題의中心인 中央統制機關의强化 地方組合의實際化 小賣配給의合理化等은 內地에잇서서도 여러가지問題가 되여잇는例도 잇서 相當한 廣範圍에 미치는 問題이므로 內地側의意向도 斟酌하야 再檢討할것으로 進展은자못注目된다

硫安中央組合 組織改組?

硫安配給統制機構의 改善에對하야서는 總督府에서도 考慮中인데 現行中央統制組合은 中心이 업는 集合이므로 統制機關으로서는 非常히 弱體化하고잇스므로 問題는 먼저이것을 如何히 改善할가에잇서서 內地의硫安販賣會社와가튼 統制會社案도考慮되나 朝鮮의 實情으로보아 到底히 實現의 可能性이업서 昨年一部에 傳한「풀」案에 落着되지나안흘가한다 卽 現行中央組合은 朝窒販賣 日滿商事의 三社의懇談會로서 實行機關을 有치못하기때문에 最高統制機關으로서는 極히 無力한것에 重大한 缺陷이 잇고 따라서 이것을强化함에는 三社共同出資의統制會社로하든가 或은『풀』組織으로고치는 方法外에는 업다고보아 會社案은 前述한바와가티 實行難을 伴하므로 結局『풀』組織으로 改組하게 되지나 안는가 觀測된다

또 中央機關이『풀』案에 落着한다고한면 地方組合의 多少의 難點은 部分的修正에 그치고 根本的改組에는 손을대지안케될모양이다

亞麻栽培計畫 北鮮地方에擴充

帝麻·總督府와提携準備中

亞麻原料飢饉에 對應하야 帝國製麻에서는 前부터 北朝鮮地方의 帝麻栽培의 一大擴充에對하야 總督府와 提携準備中이든바 今年度부터 時局에 對應키爲하야 如左히 積極的으로 進行케되엿다

一、從前의 咸南高原地帶의 栽培外 새로 平北에서 昌城、江界、厚昌三郡에서도 栽培

一、今年度의 栽培面積은 다시六百町步 增加하야 三千町步로함

一、帝麻에서는 現在二個所의 原料工場을 設置하고잇는데 繼續하야 明年까지에는 三水、端川等各地에도 新設함

그리고 右에關하야 總督府와折衝키爲하야 同社河路常務는 來十五日頃朝鮮에 오게되엿다

魚油入札中止要求 有名無實繼續?

魚油共販入札은 旣報한바와가티 硬化油會社側의 共同購入計劃에依하야 前回의 入札부터 入札者皆無에 陷하야 硬化油業者側으로부터 魚油共同購入案의擬定까지 中止하기를 要求하고잇는데 朝鮮側으로서는

一、輸移出業者인 三井、三菱은 이것과 無關係인것

一、朝鮮의 基本契約締結者인協同油脂、油肥聯도同意치안는것

一、中止할積極的理由가업는것

等의關係로 斷乎히 期間中도 繼續中이다 그러나 實際는 入札者皆無로 有名無實을 繼續하고잇다

明太肝油産 十八萬罐突破

比前年七萬罐增加

【咸南支社發】咸南道에서 昨年中生産된 明太肝油는 一八四、六六八罐으로 그中特等品이 三九六九四罐이나되며 一等品三一八五〇罐 二等品六九、六九六罐 三等二九九一二罐 四等七五六〇

不合格品이 五九五六罐이나되는데 今年은 前年中一一三、三九九罐에 比하면 七萬四千罐이나 增加하얏다

舒川金肥代 六十八萬圓

今年부터綠肥奬勵

【長項】忠南의 穀鄕인 舒川郡은 道內第一位의金肥消費地로 昨年에 六十八萬三千四百二十三圓 十錢 再昨年 四十四萬六千餘圓에 比하여 五割이라는 놀라운增加를보게되야 郡農會에서는 今年부터 綠肥栽培를 積極奬勵하여 可及的其年이라도 充當하려고 徹底調査

農事指導策을 農務課樹立中

【慶北支社發】銃後生産力擴充의 大理由로서 慶北道農務課에서는 農業經營의 合理化와 技術的指導의 徹底를期하야 營農上의 改善運動을起하고 農事改良의徹底普及을期하기로되어 十三年度부터 年次計畫으로서 漸進的으로 이라한다 이에關한 指導의 具體策을方今樹立中인데 一部成案은如左하다

一、苗坂改良成績調査를 開始하는데 此調査는 本道에서는最初의試驗이다 卽例年은道內를五區에分하야 苗坂品評會를開催하야 優良한苗坂을 表彰하엿는데 今年은 此를廢止하고 苗坂改良調査로 되엿다

二、甘藷苗坂狀況調査

三、麥의 適期刈取準備手配狀況調査

天津商品市況

工業協會의 天津의最近情報에依한 重要品況은

一、棉花 輸出能力不足에依한荷動減退로 現貨는依然累積하엿고 洋行紡績共히 實需缺乏하야 市勢는依然軟弱을繼續하고잇다

二、綿絲布 綿絲布商은 出廻를 逆하고잇는데 綿布는近來에업는 低價로떠러진것이나 그럼에도不拘코 取引은 不振閑散하야 北京方面에僅少한 小口賣行을보이고 잇슴에 不過하다

三、麵粉 軟弱步調로 市勢는 退潮하게低下하고 奧地의販賣出沒로因하야 賣行이 不良하고 實需薄이라고보고잇다

四、砂糖 輸送極難(靑島其他에 無稅輸入되는것)의 市場散見으로 實行이 進捗되지안흐나 底意堅調를 呈하고잇다

五、雜穀 當地土産品雜穀類로서의 棉實、小麥、落花生等을뇌는後는 드듸여 需要期로드러가 品不足을 告하고잇는바 最近大連、靑島으로부터 五萬枚의 入荷가잇섯다

도미에"마-크"부처 內海沿岸에放流

習性과回游狀況調査코저

【大阪】內海의鯛(도미)의習性과 回游狀況을調査하야 그繁殖을 圖코저 十府縣에서는 農林省中央水産試驗場의指導를바다 六月一日과九月一日의二回에分하야 一齊히鯛를 放流시키기로되엿는데 各府縣指定地에서 放流한 鯛에는 全部마-크를부치엿스므로 이鯛의 捕獲者는 最近官廳에 申請하면 農林省에서는 感謝狀과 薄謝를 贈하기로 하엿다

陳列窓裝飾 競技大會所感

㊃ 平南支社 方建斗記

陳列窓裝飾에對한 必要한條件을 前回까지에 大略記述하얏스므로 今番은 實際審査에當하야 어든感想과 審査經過、方法等을 發表코저한다

審査員一同은 主催側의招請에 依하야 五月九日午後一時 平壤新公會堂에 集合하야 左記와가튼 採點表에依하야 愼重히審査할것을 決議하엿다

陳列窓裝飾競技會採點表 年月日 商店番號

1、印象 (滿點二〇點)
2、時期利用 (滿點二〇點)
3、背景及配置 (滿點二〇點)
4、照明其他 (滿點二〇點)
5、效果 (滿點二〇點)

主催側會合하야 審査員十三人이 前記의採點表를 손에들고 五月의薰風을 마지면서 新綠의街路樹사이로 陳列窓裝飾을 審査키로떠낫다。但照明其他의 採點은 前夜에 各自審査하야두엇든 記憶으로 記入하기로하엿섯다。午後四時頃街頭의陳列窓을 다돌고公會堂에 다시돌아와 各審査員의 採點結果를 綜合하니 다음의成績으로 入賞商店이 決定되엿다。

▲一等(番號七)東亞商會五四二點
▲二等(番號三)齊馬靴店四九二點
▲三等(番號十四)常信樂器店四八一點

다음에審査員들의 審査後의 懇談과 筆者의 意見을 綜合하야 商店別 個別的評을 大略記述코저한다

▲番號一 泰昌商店 季節品을 陳列한點이나 商品의配置 照明其他等에 만히努力한 자최가잇스나 百貨店인 關係도 잇켓지만 넘우여러가지 商品을 陳列하야 印象卽在意點이 적어弱하엿스며 따라前作力이 적어 보엿고 說明札定價表等을 볼수업섯슴이 遺憾이엿다。

▲番號二 平安百貨店 時期利用 陳列器等을 考案하는라고 努力한자최는보이나 背景及商品配置에 잇서서(亦是 百貨店인關係가잇섯겟지만) 各種商品을羅列한感이잇섯(스나)너무平凡하엿고 照明關係 說明札等에 對한硏究를 더하엿스면시펏다

▲番號七 東亞商會 今般一等當選된 商店인만치 陳列窓裝飾에 만흔經驗을 차진자최가잇섯다 電氣及 陳列窓이 크고 完全한關係도 잇서겟지만 在意圖가잇는點 季節品을 適當히配置한點 背景의色彩等 美人이能한손씨로 잘 化粧하얏든點이 다 더욱이 照明에잇서서(혼이 配置를 陳列窓안에 보이게吊下한곳이만흔데)照明을 감추고 照明을 잘 取한點等 群鷄一鶴인 感이잇섯다。그러나 亦是 說明札及 定價表等의「카-드」一枚 차자볼수업섯슴은 遺憾이엿다。

▲番號三 齊馬靴店 今般 二等當選된 商店인만큼 創作的意圖가 만히보엿다 商品이 洋靴一種이엿데 이것을 陳列窓에 어떠케 잘陳列할가? 苦心한點이보이며 立體的으로 商品을 陳列하고 洋靴製造光景全幅을 背景으로삼는 點等 審査員의눈을 끄으러싯다。

▲番號十四、常信樂器店 今般三等當選된 商店이다 적은 陳列窓에 平凡한 樂器를 잘配置하얏섯다

▲番號五、平安洋靴本店 今般 入賞은 되지못하얏스나 單純한 洋靴를 가지고 잘 配置하얏섯고 더욱이 背景을 조흔 가주으로 한點、說明札及 定價表等을 注意를 끌게부친點等 拔群함이 잇섯다 그러나 陳列窓이 淸潔치 못한點은 遺憾이엿다 紙面關係로 其餘는 略한다(寫眞은 一等當選한 東亞商會陳列窓)

ヘチマコロン

HECHIMA COLOGNE

一家에一瓶·美容에萬能

虛費가업는保健美容에
自然美에의새로
운直線路

본살에無理를하던지强한刺戟을주
는것이아니고自然히爽快한感觸과
생생한가운대본살을健康케하고
日本人獨特한살결
의美를어데까지發揮하는것이
ヘチマコロン의尊貴한使命이옵니다

40전·63전·95전

本舖·東京 株式會社 近源商店 天野源七

雄尙에 大漁港築造
雄基港完全蘇生
沿海州漁場目標의 根據地로
港內에는 活氣充溢

【淸津】북조선해안가운데서 청진과 라진의 두항구는 제각금 상당한 시설과 발전성을 가젓스나 호올로 웅기항(雄基港)만은 라진항의 보조항(補助港)으로서의 지위에잇는외에 특수한 사명이 확연하지못하야 항세에 대하야서도 항상 우려가엇지안터니 이번에는 웅기읍내인 웅상동(雄尙洞)에 대규모의 어항(漁港)을 축조하기로 내정되여 어업의 중심지로서 동시에 어획물의 가공업지대(加工業地帶)로서의 중요성을 획득하야 다년간의현안과 불안의 기색이일소 되고 압전히 웅기항은소생케되엿다 즉 새로만들게되는 대어항은 현재 청진어항(淸津漁港)의규모와 백중할것으로 그면적만은 청진어항보담도 많엄한것이란는바 함북도 연안의 어획물을 처치하는데는 청진어항만으로는 부족이 업스나아 프로는 함북에서 한거름나아가 세계의삼대어장(世界三大漁場)의 하나인 연해주(沿海州)어장이 목전에가로노혀 잇스니 적극적으로 이어장을개발하는데는 국경선에서 너무 먼곳은 불편하다 따라서 웅기어항은 이가튼 특수성을 띄우고 연해주방면의 원양작업(遠洋作業)에 대한책원지가될 것이므로 그규모에 따라서커질것도 넉넉히 짐작할수 잇다한다

이가티 원대한 국책적견지에서 건설되는 웅상어항의 중요성과 발전성은 궁색해진 웅기항의갈등을 해소시키고 남음이 잇스니 벌써부터 활기가 시중에떠돌고 흡사 경도선종단항(京圖線終端港)이 결정되려는 찰나의 웅기의 활기에도 비길만한 상태를 여몰수잇다

三陟工場地帶化
數多工場不遠間完成
三陟鐵道도今秋開通

【春川】약진강원도의 중심세력이되여잇는 삼척(三陟)은 옛날의 한적은 어항(漁港)의 구할을 버서버리고 무진장의 무연탄을배경으로 현대적 화학공업지대화하게 되엿스며 삼척철도의개통은 압날의 발전의 생명선이 될터이라는데 불원간그일비를 보게될 각공장을 공장별로 타진하여보면 다음과갓다

▲소야전『세멘트』공장(小野田洋灰工場)=년생산량 십팔만돈(噸)금년팔월완정

▲협동유지경화유공장(協同油脂硬化油工場)=경화유(硬化油)처리 일개년간이백오십만관(貫) 금년팔월완정 시월부터 조업

▲삼척개발석진공장(三陟開發石墨工場)=년산사만돈 금년시월완정 십일월에조업

▲삼척철도(三陟鐵道)=금년시월중완정 십일월영업개시

熊川面大運動盛況

【鎭海】지난십일에 웅천면민대운동회(會)를 개최한다함은 기보와 갓거니와 당일은 오전구시부터 모혀드는관중은 무려수천에 달한가운대 경기가 시작되엿는데 남녀를 연령별로 각조로 분하야 질서잇게 경기가 진행되여감에 각경기가 시작할때마다 일반관중의 박수소래는 끈일때가 업섯다하며 동오후오시경에 마치게되엿는데 매우성황을 이루엇다한다

天譴殺人鬼自殺
妻子五名慘殺한 股栗의 兇漢

【海州】기보=일시에 안해와아들과딸다섯명을 참살하여 한간에큰충동을 이르킨은률(殷栗)의 살인귀사건에대하여는 기보한바어니와 사건발생과 동시에소관은률서에서는 도가부(渡邊)사법주임이 형사대를 대동하고현장에급행하여 자경단원(自警團員) 파및소방조원(消防組員)의응원을어더 범인이박종혁(朴宗爀)가도주한 부근산의지대를 주직으로철중수색가든 비상경계선을느리고범인 수색에활동 하든중지 난십일 오후네시쯤 동군북부면 양당리 상양당동뒤산(北部面良塘里上良塘洞白巖山)가운데서 목을매여 자살한시체를 발견하엿다

島田氏送局
十二日大邱署서

【慶北支社發】경북도회의원(慶北道會議員)대구부회의원(大邱府會議員)대구소방조두(大邱消防組頭)등의 중직에잇는 대구부대화정(大邱府大和町)미곡상(米穀商)도전금사랑(島田金四郞)은지난이일 대구서에 구인유치되여 리성옥(李成玉)사법주임 담임으로 취조를 밧고잇든바 취조가끗낫스므로 공갈협의로 십이일오전열시쯤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하엿스며 그외 기보한 모회사지배인외 세명은 불구속취체로 서류만 송치하엿는데 일반은 사건의진전을 주목한다고한다

藤花 議政府所見

淸津府議員들 滿洲各地視察

【淸津】청진부회(府會)에서는래년의 행사로매년부의원 약만명식을 선진각도시에 시찰을시켜왓는데 금년은만주각지에 일곱명의 부의원을 파견하게되엿는데 일정은 십일일에 출발하야 십일일동안의 예정이라는데 파견된부의원과 시찰예정지는 다음과갓다

◇派遣議員氏名 張始亨 張鳳鳳 黃觸律 並原紅粉 厚母 李應寅(以上七名)

◇視察豫定地 淸津 圖們 牡丹江 哈爾濱 新京 奉天 大連

安東臨時邑會

【安東】경북안동읍에서는 읍사무소가 불의의화재로 전소되고 안막동(安幕洞)에잇는 구보통학교사(舊普通學校舍)를 임시로 사용하고잇스므로 장소가협착하야 사무집행상 여간곤난을 늣기는 형편이아니므로 서부동(西部洞)영남(嶺南)터에다가 건축비 사만여원을드려서 장래 안동부청으로 사용하기에 조금도 부끄럽지 안흘만한 굉장한청사를 건축하기로 결정한후 작년중에벌써 그설계를 도영선과(道營繕課)에 의뢰하엿든바 수일전에 그설계가완성되엿스므로 이에대한 제반준비와 기타사항을 토의결정하기위하야 지난 십일오후한시부터 안동읍회(邑會)를 임시소집하엿다고한다

慶州小作爭議

【慶州】경주군소작위원회에서는 기보한바 사월이십사오일에 삼십오건의소작쟁의를 처결한후로 불과십오일만에 또소작조정신청이 륙십여건에달하엿스므로 오월십이일사 삼일간 군청회의실에서 위원회를개최하야 그중의 사실을 조사하야 … 것을 위선처지하고 나머지는도 추후수시로 계획처리하리라하며 아직도 모집으기가 못될때까지는 정의는 정정히처지할것으로 예상된다한다

商人側은또陳情
人夫들은怠業
平北道에서人夫難考慮重大視
滿浦線小寺組事件의後聞

【新義州】평북만포선(滿浦線)제사공구를 청부(請負)하는 경성용산(龍山) 소사조(小寺組)에서 작년봄경 그곳상인(商人)으로부터 일용품을 전표로 사들인후 상품대금여원을 지불하지안허 관계상인 백여명이 연명진정하야 평북도에 진정을 하엿다함은 당시보도에 보도한바어니와 이로말미아마 소사조에서는 공사의청부를 그만두고 그공황정조(荒井組)에서 전기부채를 인계하겟다는 조건미해 공사를 계속하엿스나 최근황정조에서도 자금난에빠저 아직까지 상품대금을지불하지안흐므로 재방상인백여명으로부터 수일전 경기군청을통하야 평북도에 진정을하엿다 일방 동공사에 종사하는 인부들도 역시 어가림빈약한청부업자미태서는 일할수업다고 일을하지안흐려고한다는 정보가 도에드러왓스므로 인부기근을 헌출하고 잇는때이니만큼 사건을중대시하야 도토목건축협회(京城土木協會)에 성도목건축협회에 중재시하야 … 하는동시 방금 철중정 … 중이다

咸北商聯總會
六月四、五日부터

【淸津】오는유월사、오양일간에 함북상공련합회(咸北商工聯合會) 제십이회총회가 회령에서 열리게된다 … 함북의상공련합회이니만치 그가지는 사명도크거니와 중요한 회의가되는 … 지난해에는 시국에비하야 차여잇스니 회의결과에 대하야만흔기대를갓게한다

質的低下防止코저
苹果業者들에警告
漫然經營者도嚴重取締하라
慶北道農務課서各郡에通牒

【慶北支社發】경북도는 대구(大邱)를 중심으로하야 동촌(東村)반야월(半夜月) 경산(慶山)청산(靑山)등지는 설로사과(苹果)의 명산지인데서 그품질의 우량함은 전국제일의 명성이 자자한터인바 어떤성과함게 사과재배는 유리한사업이라는 생각으로 근자 그재배자가 격증하여가는 현상인바 동사과의 과수원경영에 비로소 수입이잇는것인만치 적어도십년의시일이 지낸후는 경영중도에 포기하는자가 속출하며 또한계속한다해도 병충해 저비중에 등한히하여 그결과는 대구사과의 명성을 손상식일것으로 장차내지에서 사과검사제를 실시할려하는이때 업자의부다한 노력과 풍부한경영재산이 잇서야하겟다는것을 느낀 경북도는 제지하는일방 그지도 산업과에서는 각군에 통첩을 발하야 만연경영하려는 자도를 맹만하하지말라는 경고를 지난십이일에 발하엿다고한다

卅餘都市代表參席
水協支部 總會開幕
十二日부터大邱에서

【慶北支社發】기보=제육회 조선지부회(水道協會)는 지난 십이일오전 대구공회당에서 대회를 개최하얏는데 전아홉시부터 경성(京城)평양(平壤)부산(釜山)함흥(咸興)원산(元山) 인천(仁川) 진남포(鎭南浦)등 전조선각지 삼십여도시 각 수도(水道)계관계자 백여명 파 경북도지사 상공회의소 부회두 참석하에 성대히 개회되여 고송도(松島)경성부수도부장(水道部長)의인사와 상호(上湖) 경북도지사의 축사가잇슨후 의사에들어가 제상호의안 소회의사협도 중회에서 각사협회에서 결정된바와가튼 일반사회의 간사(幹事)개선에 들어가 고시(古市)함흥(咸興)으로 결정 다음 제오호의안인 신의주(新義州)원산(元山)목포(木浦)에서 제출한제안(提案)의 심의에들어갓다

鐵材暴騰으로 給水管을改替

【慶北支社發】별항보도한바와가티 제육회수도협회지부총회가 대구에서 지난십이일부터 개최되엿는바 이총회가 비상시국하의 회합인만치 수원지(水源池)배수지(配水池)등 급수시설의 방면에대한 기술적보고가 만흔데 한 연구가튼의로 공하 …

平壤에實修女校
九日認可·六月一日開校

【平南支社發】최근평양에 여성들에게 기예를배양하고 교양을노피기위하여 신흥도시평양에 반드시잇게 되는 실업여학교가 필요하다는 세간의 요구를반영하야 평양부에서 예산을계상하여가지고 그간 총독부에 인가를신청중이던 여학교는 구일부로 인가가되엿스므로 부에서는 즉시이것을『평양공립실과여학교(平壤公立實科女學校)』라명칭하고 유월일일개교하기로하여 생도모집을 발표하엿는데 입학원서의 접수는 오월이십일까지 입학시험은 이십육일칭량일간 평양산수(山手)소학교에서 산술 국어와신체검사 구두시험을 할터이라는바 응모자가 상당히만히잇지하여 정원 오십명의 자리를 다투게될모양이다

衛生施設完璧코저 聯合會를組織

【慶北支社發】대구부내의 위생시설의 불비와 일반위생관념의박약으로 말미아마 대구부내가 로생의 필요를 느끼지 지난십일월에 부내위생조합을 결성하고 각정에위생조합(衛生組合)을두어 그실적을 착착나타내여왓는바 대구부에서는 그긴요를 더발휘시키기위하야 총후의생활을 근호호는 창에 일원화하여이를 통괄하는데 부에서 즉시각정조합과 련락하여 그시설을단속하는일방 강독도철저케하기위하야 금월내로위생조합 련합회(衛生組合聯合會)를 결성하리라고한다

密航者二十六名
福岡에서또送還

【慶南支社發】십이일아침 부산입항의 관부련락선 흥안환(興安丸)으로 울산군하상면 남외리 일백칠십이번지 (蔚山郡下廂面南外里)리학조(李學祚)외 이십오명의 밀항자를 복강(福岡)경찰서에서 부산수상서로 송환하여왓는데 전기리학조등 밀항자들은 동래군구포면 금곡리(東萊郡龜浦面金谷里) 김규(金奎)의 두명의 밀항거간에게 속아 지난칠일에 부산진(釜山鎭)매축지(埋築地)앞 해안에서 밀항발동선을타고 팔일오후 열시반쯤되어 도초(佐賀縣東松浦郡玉島村)에상륙하려다가 당지관할경찰서원에게 발견되여 그와가티 송환된것이라한다

新安州新里地下서
또石器를發掘

【新安州】기보=안주군신안주면 신리(安州郡新安州面新里)에사는 … 가 지난십이일 자기집뒤밧에서 연료에 유용한 토탄(土炭)을 채굴하다가 이상한 석기 한개를발견하엿는데 형용을 잘분별키어려워서 연구중이엇다 그러나장소가 전번에 석부(石斧)석장(石場)을 발견한 그부근이라 …

二人組少年賊
淸州署에被檢

【淸州】청주읍외덕정(外德町)에 사는 주소부정 김창록(金昌祿)과 라상식(羅相植)은지난사월 초순경부터 시내청수정(淸水町) 리만수(李萬秀)의 포목상점에서 … 절취한것을 비롯하야 계속하야 사개소 포목상점에서 전기의방법으로 포목을 절취하엿다는바 청주서에서는 지난십일 이자들을 검거유치한후 취조중이라고한다

離婚訴訟七十件
四朔間平壤法院集計

【平南支社發】백년해로를 맹세할 그때는 즐거웟지만 이럿듯 상대가 뭇시구니 파경지란(破鏡之歎)이들 어찌 실타하겟소— 하고 제기하는 이혼소송은 해마다 늘어가고잇스니 평양지방법원에 사월이래로 제기된 이혼소송은 칠십일건이나되는데 금년두게는 실로 칠십건이나되는데 이유는 여자로부터는 외도、축첩을하는 남편과는 살수업다는것이 대부분이고 남자로 부터는 시부모나 남편을 공양할줄모르는 건방진 여자와는 살수업다는것이 대부분이다

前夫所生慘殺한 惡母에三年求刑

【海州】집안일을돌보지안코 술만먹고는 구타하는등 학대를심히하는 남편을 여읜하엿스나 그이혼한남편의씨를바다 옥동자를나차 전남편의학대에대한원한은 이어린애에까지미처 지난이월이십일오전세시쯤되여 박바티에다가 어린애를부더처 참살한 송화군천동면포리(松禾郡川東面浦里)이백사십번지 양선비(梁先比)는 전기조상에의하여 지난십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로부터 징역삼년의구형을바덧는데 판결언도는 오는십칠일이라한다

咸北의旱魃尤甚
播種해도發芽못해

【羅南】어름풀림뒤로 비를구경할수업는 함북농촌에한발(旱魃)타령이 날로심하야가더니 요사이에 어른리서는 그절정에달한모양이다 특히 고지대(高地帶)와 국경지대의 한발은심각하야 파종하드라도 싹이트지안코 뿌린씨가 바람에날리가고 만다는 반갑잔흔 현상이 농민을울리고잇다

完州愛林宣傳

【全北支社發】전북도 완주군에서는 녹비채취기(綠肥採取期)를 당할때마다 매년 림야(林野)가 황폐(荒廢)하여짐을 우려하야이에대한대책으로 산림계원총동원하야 전주 조촌(助村)삼례(參禮) 봉동(鳳東)고산(高山)등지의 장날을 이용하야 애림(愛林)사상을 선전하는동시에 림야황폐하는것을 방지하기로되엿다는바 장날에는 산림계원들이 선전비라를 산포하기로 하엿다고 한다

[illegible] 朴昇世 [illegible] 金[illegible] 朴[illegible] 李[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天民 李壽仕 朱[illegible] [illegible] 朴[illegible] [illegible] 朱秀先 李[illegible] 朴[illegible] 金[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illegible]吉 白東[illegible] [illegible] 徐[illegible] [illegible]大[illegible] 朴[illegible] 李能白 [illegible]元[illegible] 李元[illegible] 朴仁[illegible] 李吉[illegible] 黃八[illegible] [illegible] 朴治斗 李南[illegible] 金永俯 朴守業 金[illegible] 朱昌[illegible] [illegible] 朴文[illegible] 洪[illegible] [illegible] 金大[illegible] [illegible]一[illegible] 金[illegible] 李元[illegible] [illegible] 吳丁[illegible] [illegible] 李宗[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用圭 張[illegible] 金[illegible] 李[illegible] [illegible] 元[illegible] 宋[illegible] 朴吉昇 李[illegible] 宋明[illegible] 李[illegible] 李弘甲 金任[illegible] 洪[illegible] 李[illegible] 李[illegible] 李容[illegible] 金[illegible] 李[illegible] 朴[illegible] 洪[illegible] 李[illegible] [illegible] 金[illegible] [illegible] 李相[illegible] 金[illegible] [illegible] 朱興[illegible] 以上九十八名

鎭南浦至急電話
百十一臺配當

【鎭南浦】진남포우편국의금년도 지급전화신청수는이백육십여원에 달하는바 삼월말일 진남포국에는일백일십일대의배당이되엿다는데 신청자에대하여 사학결정의 추첨으로 배당이되리라고하며 추첨일은 오는 이십오일경이라고한다

光州에서도
航空郵便取扱

【全南支社發】십사일부터 경성 광주간(京城—光州間)정기항공로가 개시된다함은 본보에기보하엿거니와 그로인하야 광주지방에서도 항공우편취급을 시작하게되엿다

交通安全週間

【全北支社發】전주경찰서에서는 오월십사일부터 동이십일까지 교통안전주간(交通安全週間)으로 정하고 시내수개소에 선전『코스타―』를 부치는동시에 십사일 교통도덕이라는 제목하에 소천서장(小田署長)과 흑전(黑田)보안계주임이 강연을하고 교통회(交通會)에대한 인식을 기피하고 다음과가티 행사를실시하기로 하얏다고한다

▲十四日 交通道德講演日

▲十五日 各學校에서 交通道德에對한講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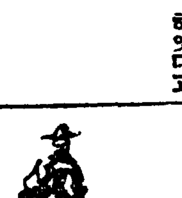
▲十六日 宣傳포스타―配布

咸興大興商業合格者

朴基鎬 金泳周 鄭時甲 李熙濟

不和夫婦에警鐘
버러진父母싸움을말리려고
自殺을企圖한子息

【慶北支社發】자기집을 근처에서 어나는 밤작으로 자기집 식도(食刀)로 하복부를 질러 그자살미수로 고민하고잇다― 지난십이일오후 다섯시경대구부칠성정(七星町)사백칠번지 대장동장예는 절어채우고 빈사지경에빠진아들을 떠메고 도립대구의원(大邱醫院)에와서 응급치료를하엿는바 그상처는 이초이나되는려로 내장이노출하엿는데 생명은 위독하다고 … 근간그부모의 불화를 죽엄으로 간고하는소년도잇고 또 부모의싸움을 죽엄으로제지할려는 청년도잇는바 그네들의 생각의 잘 잘못은 생각여지가잇는것이나 그부모의 행동은 한번검토하고 반성해야할수 문제가아닐수업다한다



長篇小說
林巨正【101】
洪碧初 作 金熊超 畫

소굴 (六十九)

어른들 판의금이 금부에 올라와서 지의금과 동의금들에게 로밥이의 말을 자세 다듬고엇더케 조처할가 상의들하얏다 로밥이가 꺽정이의 부하로 꺽정이를 배반하고 조정에 귀순하려고하는것은 포청에서 여러가지 열고한것만 보더라도 알수잇는일이고 로밥이가 꺽정이의 모를 잡아오다는것은 그다지미덥지못하나 충노에서 도망한것외에 달은념려는 업는일이라 허허실실로 한번 보내보자고 의론이 일치하야 판의금이 이뜻으로 우에 품한뒤 라장이 들과 라졸 다섯을 로밥이와 안동하야 꺽정이의 모를 잡으러 보내는데 로밥이는 몸에 오라를 지우고 그러고도 또 일동일정을 엄의로하지못하게하야 도라를 병비하라고 라장이와 라졸들을 각별히 신칙하얏다。 로밥이가 전옥을 버서나고금부를 버서나서 맘은 날을것가튼나 두팔이 오라에 묵겨 팔짓을 할수업서서 걸음은 잘걸리지 아니하얏다 잘 걸리지안는걸음을 짐짓 더 굼되게 떼어노하서 라졸들이 조금보이나도록 걸음이 느리엇다。

『이놈아 걸음을 빨리 걸어라』

『네붓하구 가지가자면 여드래 팔십니 가기가 밧부겟다』

『궁범이 천장하는나 이여석아』

라졸들의 입에서 이런말이나 올때 로밥이는 걸음을 아주멈추고 서서

『여보 걸음을 빨리 것자면 활개짓을해야하지안소 두활개를 잔득 묵거노쿠 어떠케 빨리 걸으란말이요 활개짓좀하게 두팔을 내뇌주시우』

하고 말하얏다 라졸들이 로밥이를 압에서 잡아끌고 뒤에서 떼다밀고하다가 성이가시든지 나중에 라장이들에게 말하고 로밥이의 두팔을 놀리게해주어서 그뒤부터는 로밥이가팔짓을 하며 걸음을 것는것드걸엇다。 첫날은 서울서 늣게 떠나서 고양와서 숙소하는데 밤에 잘때 오라를 풀러주지안코 도리여 내노흔 팔까지 마저너허서 묵그라고 하야 로밥이가 라장이들을 보고 밥첨이나 먼허자게 해달라고 비두 밥발하얏다 라장이들이 처음에는 떼떼하더니 나중에 엇지생각하고 큰혜택이나 베푸는것처럼 허락하야 로밥이는 오라를 벗고 라졸들에 끼어자게되엿다 로밥이가 우스개할 계제만 잇스면 어리광대것도하고 시중들일만잇스면 하인노릇도하야 라장이와 라졸들의 비위를 마추엇다 그다음날은 파주와서 숙소하고 장단와서 숙소하는데 숙소에 들며 곳 로밥이의 오라를 벗겨주엇스나 혼자 밧게는 나가지 못하게하고 심지어 뒤깐에를 가는데도 라졸 한둘이 따라가서 직히엇다 꿋날은 송도와서 중화하고 청석골로 나오는데 골어구 동네에 왓을때 압서오든 라장이 하나가 뒤를 돌아보며 여기서 잠간 쉬어가자고 말한뒤 길가에 나섯는 동네사람이를 보고 여러가지 말을 물어보앗다。

『이 산속에 대적의 적굴이잇다지요』

『네 잇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얼마가 삭시우』

『잇는사람이 도적이 적이나지 우리가튼 업는 사람이야 무슨상관잇소』

『도적의 괴수 일홈이 꺽정이라지요』

『네 그럿탑듸다』

『꺽정이가 요새 적굴에 잇습듸까』

『그건 우리 몰라요』

『꺽정이의 어미는 어듸가지안쿠 잇겟지요』

『꺽정이가 누님은 잇답되다만 어머니잇단 말은 듯지못햇소』

로밥이가 쪼차와서

『꺽정이의 양어미가 따루 사는걸 몰으오』

하고 곳 시비나 하랴는것가티 덤비어서

『그런 자세한 속내야 우리가 알수잇소』

하고 동네사람이 진말을 아니하니

『속내를 자세어 몰으거든 구구루 가만이나 잇지안쿠』

라장이 로밥이를 꾸짓는뒤 다시 동네사람이더러

『네야말루 구구루 가만잇거라』

어보앗스나 동네사람은 모두 몰으쇠로 방패막이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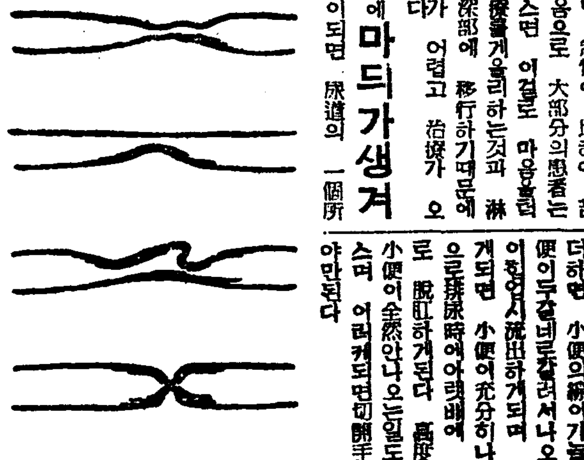
탐고개를 넘어온뒤 얼마아니 오다가 산길을 잡아들엇다 로밥이가 라졸 서넛과함께 압장을서서 길을 인도하는데 로밥이도 청석골 산속길이 초행이나 산속에서 드나드는 길목에는 말뚝이 박혀잇단말을 졸개들에게 들어서 잘아는까닭에 말뚝만 눈녀겨보며 익숙히 다녀본길가티 서슴지안코들어왓다。

淋病藥
淋疾은根治식혀라
웨淋疾은잘안낫는가

秘密病인까닭에 淋疾은 낫기가어려운가하면 秘密病이기때문에 正當한治療를 밧고 治療上에 必要한 養生法을 嚴守치못함으로 가장治療하기쉬운急性의 淋病痲疾도 慢性으로 移行시켜서慢性이되는때문이다 慢性이되면 急性에 比하야 苦痛이 적음으로 大部分의患者는 苦痛이업스면 이것로 맘을놋코 治療를게을리하는것과 淋菌이 後部에 移行하기때문에 尿道의 狹窄이 생기는 일이만타 … 又는尿道가 手足에 硬化한 여우리 … 마듸가 생겨서 別個와가리 狹窄하게된다 尿道가 狹窄되면 放尿後에 小便이 남아잇는듯한 惑이잇서 一二分後에 小便이 나와서 衣服을 더럽히게한다 그밧게 이러한病이 自然히 小便의流出이가늘어지고 小便이두갈래로나오고 전혀 小便이 나오지못하게되면 小便을볼때마다 苦痛 …

尿道에마듸가생겨
慢性淋疾이되면 尿道의 一個所가 적점적 어렵고 治療가 오래걸리게된다

다긴생가듸마한러이


(尿道狹窄圖)
이러한마듸가생긴다니小便이잘안나온다

可恐할 淋菌의毒力
男子의不姙症
淋菌때문에 睾丸을 일허버려서 아해가안 생기는 …

淋毒性류-마치스 淋毒이全身에미치는症狀으로서 마치스로 靜脈痛도誘發하다

愛兒를장님으로 나면서부터장님이되는것은大部分이 母體의淋菌感染으로생기는 것이며 또淋疾患者의兩親에게서 天眞無垢한乳兒가 그病毒에 感染되여 膿漏眼으로 失明케되는일이만타

最愛의妻에 感染된경우
淋菌이 血液中에 侵入할때에는 敗血症 心囊炎等을 일으키고 結局은 죽어야될경우가되는 일도잇다 其他淋菌이 子宮內膜炎, 나팔管炎, 卵巢炎 그보다도더危險한것은 妊娠의大部分은淋菌에依하는 … 부터不具者가되는것은 婦人에 게가장만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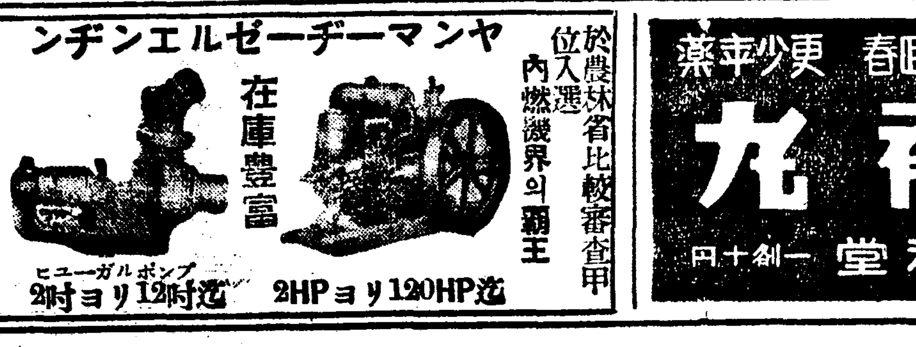
淋疾患者는 如何한藥劑를 選擇할것인가
尿道淋(淋病)을 勿論이 一日이라도 速히根本的治療를하라 淋疾은 今日의 醫學으로도 容易한病이 아니다 … 專門家가共通히 認定하는바로 …

內務大臣을會長으로하는 高等醫藥界의 最高權威者十六名을委員으로해서 일을審議한結果그品位를決定하야 日本藥局方에 收載하고 또內務省試驗所에서 撿查封緘한藥劑가 我醫藥界의 稱號이되고잇다 그럼으로 우리有田도랔구의淋疾藥은 政府指定、醫藥業界의 最高權威者選定의日本藥局方收載를 內務省衛生試驗所封緘의 治淋劑六種을主藥으로해서 配劑한 可濟治淋劑이다 服藥해서 何等의副作用이업는것이 本劑의特長이다

藥의有効無効는小便을보아알수잇다
淋疾患者는 여러가지 療法에 속아서는안된다。第一注意할것은 小便이다。普通사람으로 淋疾을 알는데는 小便을 곱부에 바다보면 실오라기같은것과 잔티가 뜨기도하고 가라안기도해 잇다 그것이 淋絲라는것이다。 아무리 藥을먹고 注射를해도곱부에 小便을바다보고 실오라기와가튼 淋絲가 곳減하지안는藥은 所用업다
그럼으로 小便을보고 淋絲가 업서지는藥을 먹지안흐면안된다 藥이有効하면淋絲도減하고압흔것도 업서지고膿도 끈치서全快의 目的을 達하게 되는것이다

淋疾患者는여러가지廣告에속지말고 有田도락구專賣所를차지라

有田ドラッグ專賣所
京城 郵便本局前 龍山練兵町
平壤 泉町二
釜山 幸町一
群山 驛前通
全州 高砂町
光州 本町三
木浦 榮町二
大邱 弓町
馬山 京町三
水原 浦項本町
議政府 兼二浦本町
鎭南浦 漢頭里
海州 南本町
新義州 櫻町
元山 本町三
咸興 軍營通一
羅南 生駒町
興南 上天機里

ヤンマーヂーゼルエンジン

在庫豊富 於農林省比較審査甲位入選 內燃機界의覇王
ヒユーガルポンプ 2吋ヨリ12吋迄 2HPヨリ120HP迄
型錄進呈 古賀商會 平安南北道總代理店 平壤府八千代町 電話一四五五·一八六二 振替京城二六一九九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洞 平和堂 一劑十一圓

早漏 … 五行公司藥品部

性器强大藥
男子性器發育不良 陰萎 … 小賣店에잇슴 … 藥價 …

博士創製한 털나는약
털나는藥 후미나인
禿頭病 若禿 胎毛 無毛 … 가리매버서진대 노생적고몰섭한대 男女날대안나고其他털이적어보기흉한이는 … 價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五十錢 (全國到處의藥店에잇슴) 東京市芝區田村町 發賣元 東京藥院

經濟朝鮮解說

物價高와그對策 ③

三大部門別로 物資需給을再編成

昭和十二年度의 政府一般會計豫算 二十九億五千九百萬圓은 前年度豫算에 比하야 大體五千萬圓增이엇는데 (追加豫算도合하야) 支那事變이 勃發되자 臨時軍事費特別會計를 創設하고 十三年一月末까지에 二十五億四千萬圓을 計上함에 이르럿다. 兩者를 合計하면 前年度에比하야 約三十二億圓이라는 國家豫算의 大膨脹을 示하얏고 이中物件費를 八割로보면 二十五億六千萬圓이고 其中의 大部分이 軍需資材費로 볼수잇다. 이것을 一面으로보면 政府가 軍需資材에對한 巨大한 購買者로서 商品市場에 나타나게된것인데 이가튼尨大한 資材의 需要에 對하야는 我軍需工業生産能力이 能히 充當할수잇는바가아니다.

事變의進行에 따라 軍需資材의 充足을 爲하야서는 무엇을 犧牲하고라도 이것을 圖치안흐면 아니된다. 貿易에 잇서서는 輸出入品에 잇서서 軍需品第一主義를 確立하는同時에 企業에 잇서서도 臨時資金調整法에 依하야 重工業優先主義의 原則을 實施하게 된것은 戰時經濟遂行에 當然한 歸結이라고 할수잇을것이다. 그리고 限이잇는 我重工業生産能力下에 잇서서 大한 軍需資材의 要求는 當然히 重工業品의 海外로부터의 輸入이 顯著히 增大하게된것이다.

大藏省貿易月表中 一、油類及同製品 二、藥材、化學藥品及同製品 三、鑛物及同製品 四、鐵及金屬 五、金屬製品의 重工業品輸入 合計는 十二年에 十八億三千萬圓에 達하야 前年의 十億二千萬圓에 比하면 實로 八億圓에 達하는 輸入增加이엇다.

十二年 輸入總計가 三十七億八千三百萬圓의 巨額에 達하고 十一年度의 二十七億六千三百萬圓에 比하야 約十億圓의 增加와 六億圓에 達한 入超를 招來한 原因은 實로 多額의 重工業品輸入에 잇다는 事實이 明白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巨大한 重工業品輸入의 許容은 一方에 잇서서 消費財에對한 輸入 **抑制** 라는 形式을 取하야 나타난것도 不得已한것이다. 輸出入品臨時措置法에 基하는 輸出入許可規則에 依하야 不急不要品二百六十九種의 輸入禁止, 棉花、羊毛、木材等의 輸入制限이 實施되여 此等의 效果가 充分히 十二年貿易統計에 나타나잇다고는 할수업스나 棉花、羊毛等에對한 輸入制限은 下半期의 後半期로부터 이미 實施되여오든것이다. 그러므로本年에는 其特色이 明瞭하게 나오겟지만 十二年의 貿易에도 戰時經濟遂行에 依한 特色은 相當히 顯著되엇다.

即 昭和十年의 輸入貿易에 잇서서는 輸入總計二十四億七千二百萬圓中 棉花 羊毛 人絹用펄프의 纖維工業品輸入合計는 九億三千七百萬圓 比率에 三割八分弱 一方重工業品輸入合計는 九億六千四百萬圓 比率에 三割九分인 狀態에잇섯다. 그것이 十二年에는 輸入總計三十七億八千三百萬圓中 纖維工業品輸入合計는 十二億二千七百萬圓으로 比率은 三割二分 重工業品輸入合計는 十八億三千萬圓으로 比率은 四割八分이어서 以上과가티 其輸入貿易의 構成內容에 잇서 十二年과 十年과의間에 變動이 生한것이다.

輸入貿易中 重工業品輸入의 占하는 地位는 非常히 向上하얏슴에 反하야 纖維工業品輸入이 占하는 地位는 低下하야 二大輸入商品部門의 相對的關係에 顯著한 變動을 招來하얏다. 十二年을 通한 이輸入貿易에서 보는 構成內容의 變動은 우리 產業界의 構成內容에 잇서서도 多大한 變動을 誘致하야 重工業의 纖維工業에對한 相對的地位를 一層引上한것은 當然히 推測되는것이고 나아가서는 將來의 物資需給關係에 큰變化를 주는것도 當然이라고 아니할수업다.

重工業과 纖維工業과의 相關關係로보면 我重工業의 發展이 一途纖維工業의 支持를 期待하고 今後重工業의 地位의 向上에 依하야서도 그關係는 決코 消滅하는것이 아니고 더욱 그密接한 度를 加하는 關係에 잇다는 豫測을 세울수잇는터로 重工業製品이 將來市場을 開拓하야 輸出되던가 或은 重工業生産能力이 將來消費財의 生産手段으로 生産에 向하야 結局 消費財의 輸出增進에 이르게까지는 豫測을 容易히 할수업다.

一方 纖維工業品의 輸出增進이 重工業生産能力擴充의 困難한 遂行과 不可分한 關係에 잇다. 即 「生産力擴充」이라는 「슬로간」과 「輸出振興」이 朝野의 重要問題로서 그重要視하는바가 그纖維工業品」의 輸出增進에 關하는것이다. 그리고 重工業이 잇는것은 當面의 事情을 左右하는것이다.

生産 擴充을 遂行하면서 國際收支適合을 圖함에는 「纖維工業品의 輸出增進」과 「纖維工業原料의 輸入抑制」라는 矛盾된 非常對策도 不得已한것이다. 그러나 矛盾은 어떠케해서든지 解決點을 考察치안흘수업다. 即纖維工業品中國內消費用의 供給을 極力減하는수밧게는 方途가업다. 綿絲布에 「스테이플·파이버」의 强制混用, 毛絲毛織物에 强制混用等이 行하고잇는것은 이所以이다.

其他에잇서서도 消費財中 國內向에 對하야서는 不急不要品의 輸入禁止 資金調整法에依한 不急事業의 新增設、擴張의制限에依하야 必然國內向消費財供給을 減少시키지안흘수업다. 二一方消費財로도 生絲、綿布等을비롯하야 輸出增加를 圖치안흘수업다.

以上에 說明한바를 綜合하면 軍需生產擴充을 遂行치안흐면 안된다는 事情은 從來各種物資의 正常狀態에 變態作用을 미처重工業品에 잇서서는 同一하나 其需給의 直接原因에잇서서는 相反하는 重工品、國內消費財、輸出品의三品三種의 各其다른物資 需給이 形成되는것이다. 各種物資의 需給은 價格이가지社會的機能에 依하야 一國民은 國際商品에 對하야서는 널리世界를 通하야 各種物資의 需給이 調整되여 잇섯지만 이미世界的으로는 經濟的國家主義의 影響에 依하야 切斷되엿고 또我國에잇서서는 軍需資財充足第一主義의 强權下에 國內各種物資間의 需給關係에 再編成이 行하고잇다 그리고 右物資의三部門에 對하야 其特徵을 簡單히 말하면

一、軍需工業品의 需給은 國家需要의 豫測에 잇서서 모든 價格에 拘하고 需要가 巨大하게 要求하는 先導이 要하나 供給은 絶對的으로 減少傾向에 잇스며

一、輸出商品은 增加한다는 點에 잇다.

最初物資價格은 形式을取하고 잇는것이 最近에 잇서서는 戰時下의 物價問題로서의 性格이 가진 社會的機能에 依하야 軍需品充足優先이라는 强權的으로 交替된 今日에잇서서는 代의것과는 性質이 달르고 그 밖에 또容易치안흔 重大問題인 許實을 가지고잇다 以下軍工業品 輸出品 國內消費財의 三代表的商品의 需給을 基礎로 具體的物價騰貴의 原因을살펴보자。(계속)

米消費量新記錄

半個年에千二百七十八萬石

比前年同期二百四十五萬石增

總移出千百萬石疑問?

豐年에鼓腹

大體如左하다

▲供給	
繰越高	三三五千石
實收高	二六、七九六
輸移入	一二
計	二七、一四三
▲需要	
輸移出	七、〇四五
現在高	七、三三六
計	一四、三八一
▲差額(消費)	一二、七八二

으로半年間消費는 一千二百七十八萬二千石에 達하야 半個年消費量으로는 新記錄이엇다 이것을 二千四百萬人口로 除하면 一人當半個年에 五斗三升餘의 消費로써이제三月一日在米와 五月一日在米를 가지고 그兩月間에消費가 百九十三萬六千石에 達하엿고 半個年間의 總消費를月平均으로치면 一個月二百十三萬石의 計算이되엇다

五月一日 需給內容을 計算해보면 三、四現在朝鮮米의殘存米는七百三十一萬六千餘石으로發表되엇는데 이殘存米를基礎로 昨年十一月以降四月末까지의六個月間消費狀況을보면

前年度半個年間(十一年十一月－十二年四月)의 總消費高는 一千三十二萬七千石으로써 一人當消費는 四斗六升餘이엇스니 今年度半個年과 比較하면 總消費는二百四十五萬五千石의 消費增이고 一人當은 約七升의增大이엇다이 比例로 남어지 半個年도消費가

增大되리라고는 볼수업스나 十二、三年產米는 二千六百七十九萬六千九百五十石에서 半個年間의消費一千二百七十八萬石을除하면 一千四百萬石이되는바 이中今年度總移出을 假比율 一千百萬石으로 잡으면 남어지는 三百萬石에 不過케된다 이것으로써 今後半個年間의 消費와 持越高五十萬石을 豫想하여야겟스므로 萬若今後消費增이 지금까지 半個年間의比率로 나간다면 或은 總移出豫想一千百萬石은 疑問視될것이다

移出港在米

百卅萬三千石

比前年同期 四十一萬七千石增

米穀調查＝五月十日現在 朝鮮內移出港在米高는 (政府米를 除함) 百三十萬三千百七十九石으로서 前年同期에 比하면 四十一萬七千七百廿一石의 增加이다 前旬에 比하면 四千二百六十七石의 減少인바 그內容을보면 如左하다 (單位石)

	本年	前年同期
正租	[illegible]	[illegible]
玄米	[illegible]	[illegible]
白米	[illegible]	[illegible]
糯米	[illegible]	[illegible]
內地米	[illegible]	[illegible]
合計	一、三〇三、一七九	[illegible]

各港別은 如左하다 ▲釜山 一二七、九六六 ▲馬山 一八、九九〇 ▲麗水 七八、二五〇 ▲木浦 一九九、六七九 ▲群山 二一七、二二六 ▲江景 三六、二二三 ▲仁川 二〇八、八四八 ▲海州 四三、三五八 ▲元山 二二、九二一 ▲南浦 二三三、八八一 ▲浦項 一六、八四七

產金獎勵金申請

合計二百六件의多數

採鑛184 鑿岩機84 選鑛機34

產金增產五個年計畫에伴한 獎勵金交付申請은 五月十日까지마감하엿는바 採鑛獎勵金申請이百八十四로 其中昨年度부터 바더오든것이 六十八 新規가百十六이며 鑿岩機設備獎勵金申請이八十四 選鑛機設備獎勵金申請이三十四 合하야 二百六件의多數에達하는데 殖產局에서는 鑛山技師按手를 總動員시켜 五月二十日부터 各地로向하야 實地調查한後 銓衡하야 獎勵金交付를 決定하리라한다

佛銀行利下

【巴里十二日發同盟】佛銀行은 十二日再割引率을三分에서二分半으로 引下할旨를發表하엿다

興業債券

二千萬圓發行

【東京電話同盟】興銀에서는 前月上旬以來 起債界의 閑散狀態打開의 端緒를 찾기爲하야 市況의 情勢를 打診하려고 興業債券發行을 計畫中이엿슴으로 大藏省의 認可도 어덧슴으로 十三日政府保證興業債券第一回二千萬圓을 前回同樣의條件으로서 發行하게되여 此의引受者에게 公募를 行하기로되엿다 도이것의 發行은 成立을 보게되리라고 豫想된다

一、總額 二千萬圓
一、利率 年四分二厘
一、發行價格 額面百圓에 對하야 百圓
一、元利支拂保障 本債券의 元利支拂에 對하야서는 政府가 이를保證함
一、償還期限及方法 十五年 但 三年据置마다 半期二十萬圓以上償還又는 買入償却
一、申込期間 五月十七日부터同月十九日까지
一、拂込期限 六月十日

全南서間島見本市

本月十九日부터 向一個月間에 亘하야열리는 總督府主催의 滿洲綜合見本市를 機會로 全羅南道에서도 來十九日부터 三十日까지 間島省圖們、延吉、龍井各地에서 綜合見本市를 開催하게되엿다한다

經濟界消息

◎南鮮合同總會＝南鮮合同電氣에서는 來三十日午後一時 京城府事業會館에서 臨時總會를 열고 左의件을 附議하리라한다 一、取締役上林充人氏死亡에對하야 其遺族에게 弔慰金贈呈의件 二、取締役一名補選의件

◎鐵道局課所長會議＝鐵道局에서는 來十八日午前九時부터 鐵道局第一會議室에서 新局長着任以後 第一回의 課所場長會議를 開催하기로되엿다한다

◎北支電業에南鮮合電도出資＝南鮮合同電氣의 北支進出은 時局上 極히 注目되여오섯는데 北支의 電業統制에 順應하야 內地電聯과 協同步調를取하고 協力進出하기로 正式決定되엿다 이것은 電聯系의 北支電業公司(資本金五百萬圓)의 十倍增資에 對하야 電業側은 十五社外一社으로서 南鮮合同도 參加하게된모양이라고

◎都市經濟總會＝朝鮮都市經濟會에서는 來三十日午前十時부터 東拓會議室에서 定時總會를 開催하고 一、當期諸決算案承認 金融分案承認件을 附議할터인데 配當은一割据置로內定

◎日本마그네今秋增資?＝城津의日本마그네 化學工業에서는 重需工業繁忙에 伴하야 『크링카－』 耐火煉瓦의 需要增大에伴하야 二倍增產計畫을 實行中인데 이와同時에 硅石煉瓦의 製造에도 進出하고잇다 이것은 耐火煉瓦中의 優良品으로 月產五千噸의 豫想이다 그리고 此等의 增產計畫進行에 依하야 增資도 秋中에 實現될豫定이다 同社는資本金이二百五十萬圓이라고

三陟無煙炭

積極的採掘

朝鮮電力諸事業全貌

朝鮮電力에서는 寧越의 火力發電事業과 三陟의無煙炭採掘鐵道、化學工業等의 事業進捗에伴하야 全面的으로 第一、第二擴張計畫을 樹立하고 大體本年十一月의 三陟鐵道完成을 第一期로 諸事業의 完成도 이와併行케할方針下에 目下銳意諸事業을 進行하고잇는바 內藤專務는 十二日入京하야 十四日同事業地로出張하야 數日間滯在하고 其督勵監督에 當할모양으로 同氏의말에依하면 諸事業의 進捗狀況及計畫方針은 大體로如左하다

▲三陟鐵道 終點을 道溪里로하고 이로부터 三陟에至하는 四十三키로로 本年十一月까지에 完成한다

▲三陟無煙炭採掘事業 道溪山脈의 下部所達面及同山脈의 上部上長面의 炭鑛區를開發할方針下에 道溪里로부터 山下에至하는 四키로山上의 運炭軌道八키로及 其間의 索道三키로의 運炭輸送線을 建設中으로 急速히 工事의 完成을 急하고잇는데 採炭事業은 가장 炭質이 良好하고 가장 鑛層이 豐富한 上長面에 注力할 方針으로 所達面의 鑛區는 繼續採掘하며 石炭鑛籠에 對處키爲하야 積極的採掘을 行한다 但山脈地帶이므로 運炭力이 자못困難을 伴하므로 前記의軌道와 索道에 約三百萬圓을 投하야 十一月까지 完成하고 第一期計畫으로서는 五萬噸乃至十萬噸의 出炭을 行할豫定이나 輸送能力이 이에 伴하지못하므로 數個月間은 月三萬噸가량의 豫定이다

▲墨湖港築港 防波堤카―손工事等으로 約三個月가량느젓스므로 다른諸事業完成에不及하리란豫定下에 本年中에 假棧橋를 建設하고 二千噸級의 船舶을드러오게할모양인데 風波時의 荷役如何를 研究中으로 本格的築港은 昭和十六年完成의 豫定으로 八千噸級三隻이 定泊할수잇는 設備로한다

▲石炭鑛業工場 北坪里에 建設中으로이것도十一月에 完成하야 年內에操業을 開始할豫定이다

龍山工作會社에서

車輛千台受注

機關車工場을新設

龍山工作에서는 局線을비롯하 私鐵及滿鐵에 對하야 各私鐵로부터 車輛一千輛의 製作을 引受하고 目下工場能力을 總動員으로 製作中인데 이에要하는 鋼材는 局線分은 鐵道局에서斡旋하고 私鐵分은 不遠間設하는 鐵鋼統制委員會에서 配定을 박게되엿는데 車輛一臺는從來에四、五千圓의 製作費이든것이 現在는 一萬圓以上이라한다 또同社에서는 機關車製作工場을 新設하게되여 目下着工中인데 機械關係上操業이 느저진 明春頃에 開始는 될것이라한다

春蠶豫想掃立數量

比前年約一割減少

【東京電話同盟】農林省發表＝昭和十三年四月末日現在의 春蠶豫想掃立數量은五九、六八七、〇九〇瓦로 前年에比하야 約一割의 減少를 示하얏다

朝郵、江龍丸傭船

朝鮮郵船에서는 西鮮航路의 緊忙에 對應하야 江口汽船의江龍丸(三千四百噸)을 五月中旬後十個月期限의 長期傭船을 行하얏다

株式

賣方踏上 暴騰

今日의市勢 (十三日)

前場躍騰 十三日동안 一起一伏場面中에서도 底强味를發揮한市勢는 今朝의滿洲事變終約의好感과 戰局의活潑狀을보고 賣方이 踏上하야 東京으로부터 一轉上放한것이 當地高로 當地亦東新一圓二錢高 鐘紡二圓高 滿業五高 大新七錢高等으로奔騰寄付한後 東新은百五十圓大益高를 回復하고 鐘紡도二百六十圓大益高를 回復한後 小口買方利喰도잇서 少弛裡에 東新百四十九圓七 鐘紡二百五十九圓五에 大引되엇다

後場續騰 後場은 續伸裡에 東新百五十一圓五、鐘紡二百五十九圓九에 寄付한後 東新은百五十二圓臺로 上進하고 諸株도 堅調를 持續하얏다

高價飛付警戒

場面은 賣方의 踏上으로 騰勢局面을 一變한 感이잇서 騰勢展開의 地盤은 相當한 氣運을 보엿스며 戰局의 展開는 環境情勢는 弱氣를 許하지안케되엿스며 무엇보다 金融緩慢은 生保側、地方銀行側等을 中心으로한 投資團의 背後勢力으로서 相當한 買力을 發揮하고잇는터이라 漸然弱氣를 不許한다 하겟지만 東新百五十二圓台上은 大股의 押目이오 東新百五十二圓台上은 制力이잇는 터이므로 百五十二、三圓이잇다면 다시 賣며되어 底調가 되지안흘가하는 說도잇서 지금高價에 飛付하는것은 警戒할必要가잇스리라고한다

國債區區

【東京電話同盟】當限落調保로 賣買薄이며 大體保合狀態이오 甲號는 一、二回四分은 五錢高이오 甲號는 減分騰落로 五錢下押하고 外債는 米貨五分半十錢進되엇다

▲一回四分一〇二四〇 ▲二回四分一〇二四〇 ▲二十三年物九八五〇 ▲佛貨四分一九七四 ▲米五分半二六〇六〇

市場六感

㊑…市勢의伸力이遲遲하야 賣安心狀態이든市勢는 周圍의 環境이 明朗化로 急轉上放 ▲實物의踏上이顯著하야 今朝一場으로一氣東新鐘紡이 各其百五十圓、二百六十圓大臺를 回復하는 可驚할騰勢를示現▲그러나이러면 서도 徐州陷落으로 示現하는 高價를 買하고저 겨누는賣人氣도 一方에는잇고 東新百五十圓以上에는 高價買玉의處分物도 相當히잇서 ▲展望惟示現後一押은 또當然視되어 高價飛付는 警戒 ▲金融緩慢의 底力은 相當한底力을 添加하고 場局은 다시一騰을 加하야 實物一轉

㊎…今朝는 內地米第二次代가到來? 再轉上進할때에 相當한賣物이 잇슬것이오 ▲이것이 底調로잇나 日前의 戾新高 慎은 울이러한 賈에 妙味가 잇슬 頭하는 新買方의勢力도 不可輕視나 ▲하다아騰勢는 亦是 底調後일지나 賈物이 全國 確 ... 式의 暴騰으로 俄然反高▲株式의 勢로 一巡하여 ▲ ... 底調後 ... 展開가 매우 ... 大勢 ... 今後 ... 左右될모양인즉 一擧千金의機는 이로부터到來

俄然奔騰

戾買人氣에 抑壓되던서도 玉整理를 終了하고 惡材料에 銳鋒된 市勢는 保合을 暴破하면서 式陷落道 戰局의 活潑하야 徐州陷落이라고 傳하야 人氣는 俄然硬化하얏다 賣込을 一巡한 市勢의 開明이 小口賣方의 踏을 主로 回復하는 活潑한場面을 展開되엿다 勿論小幅이나마 追開되여진 高價 保合의 二百六十圓等의 大臺를 回復하고 東新百五十圓 鐘紡二百六十圓等의 大臺를 回復하고 ... 新賣에도 奔騰하야 東新百五十一圓은 ... 退讓할수밧게업시되어 諸株一齊戾

米期

低寄後 反戾

前場狂瀾 今朝阪地先限三十五圓〇三錢인 六丁反落을 傳하고 當限은 一圓九十二錢인 二丁低 中限은二圓十二錢인 亦三丁低로 先限은 三十二圓 四十二錢인一丁低로 寄合한後 阪地二節〇八錢을比하야 六、七節十七錢의 突高價 接하고 六節五十九錢으로阪地八節十五錢의 小落을入하야 八節五十五錢으로結局 阪止〇七錢을보고 四十八錢에止場하다

後場軟保 後場은 四丁高인 三十二圓五十二錢으로 給場한後 二節四十六錢에 反弛하엿스나 다시 四十七錢 四十九錢 四十七錢으로 細刻保合이엇다

殘米發表微響

五月一日現在 內地米 第二次發表는 一千百五十三萬 八千八十八石으로 昨年同期에 比하야 一萬二千五百三十五石의 增加量示하엿스니 兩次發表의 分이 二千五百四十六萬八千二百四十三石으로 그實十二萬一千七百七十四石의 減少인데 市勢는 今朝各地一齊小落을示하던니 俄然反騰로不許할小落保合이 되고 寫第三次發表가 또한如何할지 다 第三次의 發表가 또한如何할지는 疑惑으나 內地米는大體減少를免

(米期의 나머지 略 [illegible])

正米

木浦外는 低落

京城少弛

朝鮮內殘存米의 豫想外의增加는 곳 內地市場에 波及하야 滿算은 一齊軟化하게 되어 市中의近來의强硬態度도渡 分是正되고 市價도五錢低唱이되 엇스나 發表의全貌待로 靜觀하 고이섯다 一等三一、七五 二等三〇、五五 三等 ...

仁川軟化

朝鮮在米의 意外多數이며 內地第二次 發表도 增加量 示하엿스므로 買方은低唱으로 傍觀하나 定期堅强으로 仲値는 昨日보다五錢低이엇다 一等... 二等... 三等...

釜山下向

內地二回目發表 在米增으로 因한一部의 軟化로 市價五錢低落되엇스나 此邊 發表全貌待로 一喜一憂市勢라 取引은 매우不振이다

大邱保合

一般은氣迷人氣가 濃厚하고 在米全貌待인데 ...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木浦沸騰

朝鮮米殘存米增에 依한 押目買人氣가 沸騰하야 實物背景이 되어 市勢는 大沸騰을 演하엿다 四十錢의 ...

群山崩落

殘存米는 期待에 反하야 昨日의 人氣는 消散되엇는지 그자 最初도엇고 加하야 內地第二次殘存米는 增加를 示하야 東海市中所持側의 一部는 마치 내리깔지 못하야 暴落化되어 實勢잇어 곳곳에서 이러나 暴落로 市價十錢乃至 二十錢으로 朝落을 演하엿다

今日財界 十三日

◆米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京城一等米一石	[illegible]		
白米百키로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株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鐘紡	[illegible]		
人絹	[illegible]		
砂糖	[illegible]		

海外經濟 十三日

[illegible]

銀行券 十三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阪神鰯油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東京金利 ◆大阪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金銀價

◆東京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金買入價 ◆賣

[illegible]

正米 正租

◆京城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仁川正米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大連特產市勢

滿洲商況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賣定代引日步 ◆朝取主要取組高 ◆大阪短期 ◆東京短期 ◆東京現株 ◆大阪短期取組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期米

◆大阪長期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釜山期米 ◆群山期米 ◆木浦期米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大阪期米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證券·期米部 京城 福 仁川 吉村取引店

期米 東 仁川府海岸町三丁目 趙俊鎬取引店

朝 盃 取 金盃證券 京城府 町二

京城物價 (十三日)

[illegible]

砂糖 生糸 人絹 棉花 綿糸

◆東京砂糖 ◆大阪砂糖 ◆橫濱生糸 ◆各地人絹 ◆大阪棉花 ◆大阪綿糸

[illegible]